

통합

2010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지원 RESEARCH REPORT

돌봄서비스

연구자 김영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최유진 이화여대 사회학과 강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우)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Tel.02-336-6364 Fax.02-336-6459
E-mail.womenfund@womenfund.or.kr
http://www.womenfund.or.kr

통합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자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최유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보고서 목차

Chapter 1

005 서론

- 006 1. 연구 배경 및 목적
- 008 2. 연구 내용 및 방법
- 010 3. 관련 용어 정의

Chapter 2

011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서비스

- 012 1. 돌봄과 공공성 증진
- 017 2. 지역사회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Chapter 3

027 통합 돌봄서비스 유형과 성격

- 028 1. 정부주도 포괄적 보육서비스
- 036 2. 민간 협력 포괄적 돌봄지원
- 041 3. 민간주도 지역연계 돌봄활동

Chapter 4

045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현황

- 046 1. 보육 도우미 양성과 여성 일자리
- 050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례를 중심으로
- 055 3. 저소득층 가구 자립 지원

Chapter 5

061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모델 구축(안)

- 062 1. 비전과 목표
- 065 2. 추진전략
- 068 3. 추진과제
- 072 4. 추진체계

Chapter 6

075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발전방안

- 076 1.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성
- 078 2. 주민참여 돌봄활동 조직
- 080 3.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083 부록 :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운영 매뉴얼

표 및 그림 목차

009 [표 1-1] 면접조사 설문 구성
009 [표 1-2]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018 [표 2-1] 정책 부문별 사회적 돌봄서비스
020 [표 2-2] 한국 돌봄서비스의 구성
022 [표 2-3] 한국 돌봄인력 구분

029 [표 3-1] 각국의 저소득층 아동지원 포괄적 서비스
031 [표 3-2]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033 [표 3-3] 드림스타트 서비스
034 [표 3-4] 드림스타트 유아 대상 영역별 프로그램
037 [표 3-5] 미국의 지역사회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039 [표 3-6] 지방자치단체 NGO 지원 방식
040 [표 3-7] 케어 관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042 [표 3-8] 유럽의 대인서비스 관련 사회적기업 사례

047 [표 4-1] 기본교육 프로그램 구성
049 [표 4-2] 보육 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 광주 사례
050 [표 4-3] 지역자원 사례 - 광주
056 [표 4-4] 보육서비스 제공 기준 - 광주
057 [표 4-5] 솔루션위원회 구성
058 [표 4-6] 서비스 연계 요구
059 [표 4-7] 솔루션위원회 사례 - 인천

070 [표 5-1] 주민참여 돌봄활동 과제 내용

024 [그림 2-1] 영국의 문제진단틀
025 [그림 2-2] 가족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피라미드

063 [그림 5-1]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모델
073 [그림 5-2] 지역사회 돌봄에서 여성단체 역할

Chapter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관련 용어 정의



연구 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 특히 여성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돌봄(care)’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기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 시스템이 비교적 잘 발달해 있는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돌봄 영역을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돌봄서비스를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해 왔다. 전통적으로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져온 돌봄이 사회정책과 공공 서비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돌봄이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돌봄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도 돌봄노동은 개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난 3~4년간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인분야의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제도의 실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실시 및 장애인요양제도 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제도의 확대 등 기존의 복지 주요 대상층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기획되고 제공되어 왔다.

물론 여전히 저소득층 가족의 돌봄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가족 내 돌봄 문제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없고, 현재의 보육 지원 구조로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아동 돌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중심 서비스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야간 또는 휴일 보육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영아 또는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매개로 하여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연간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고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또한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 또는 주말 보육서비스를 아이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규정이 까다로와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 돌봄의 문제를 새롭지만 보편적인 사회적 위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의 정착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신체적 보호나 이동 서비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 고용, 소득 및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의 총체적인 존재여건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생계, 고용, 의료, 주거환경, 교육의 영역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다양한 결핍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단계는 아직 요원하다. 최근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동 돌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주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요자의 다차원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 돌봄이 갖는 복합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가져온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체계적인 활동이 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돌봄의 위기에 대처하는 단위로서 생활권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기업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한국여성재단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육 서비스 사업(이하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이 지역사회 돌봄의 구심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지역사회적 해결 방식을 그려보고자 한다.

지역사회는 생활의 단위로서 아이를 키우고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하며 이웃 간 공동체적 관계가 구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한 양육은 보육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동과 보육교사 간의 개별적인 관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전체가 포괄적인 돌봄에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다양한 돌봄 요구를 해결할 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여성들의 일자리 또한 지역 내에서 창출되며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한국여성재단의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이 연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을 매개로 한 이웃간의 관계 증진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첫째,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둘째, 지역 내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며 셋째,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건강한 시민 공동체 창출이라는 전망 하에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합 돌봄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적 해결 방식을 둘러싼 국내외 이론적·경험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정부-기업-NGO 간 협력 모델로서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탐색한다. 둘째, 국내외에서 시도 되고 있는 포괄적 보육서비스, 민관 협력 돌봄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주도 돌봄 사업 등을 분석하여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한다. 셋째, 2010년 수행된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 덧붙여, 현행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제공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2010년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4개 지역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로서는 돌봄 및 돌봄서비스 관련 국내외 이론, 포괄적 보육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사례 분석,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자료, 국내외 돌봄서비스 관련 규정 및 운영 매뉴얼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근거한 통합돌봄서비스 모델의 틀을 구성하였다.

둘째,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인천, 제천, 광주,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정보육사에 대한 심층면접, 마을보육 현장 및 솔루션위원회에 대한 참여관찰 등을 통하여 현행 사업의 성과와 어려움을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작성의 근거로 삼았다. 본 면접 조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문의 구성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면접조사 설문 구성

영역	항목	세부문항	
사업 주체	파견 사업 일반 현황	파견 기구, 보육사, 솔루션위원회,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원 현황	
	거점 보육 사업 일반 현황	거점 보육 목표, 운영 프로그램,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업 효과, 지속가능성	
	솔루션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솔루션위원의 책임성, 사례 관리의 전제가 되는 보육사 판단의 적절성, 실제 문제 해결한 모범 사례 및 실패 사례	
	관리체계	구성 현황	파견사업, 거점보육, 솔루션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DB구축이나 매뉴얼 작업, 주기적 평가 등 체계적 관리, 사업 간 연계성 정도 등
		관리 어려움 및 개선 사례	보육사 지속 교육, 보육사 근태 관리, 파견 가정의 불만 관리, 사례 모임, 가정 방문,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사업 종료 후 계획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보육사	일에 대한 주관적 느낌	자부심, 지속가능성, 가정경제에 도움, 사회적 자원 증대 등	
	근무 여건	파견 가정 관계	아이 돌보기와 기타 가사 간의 경계, 파견 가정의 과도한 의존 또는 무시
		직무 어려움	프로그램 부족, 부모 및 아이 등과 관계구축 어려움, 교재교구 부족, 건강이나 학업 등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작업여건평가	일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 관리 등 시간 관련 만족도
		지원여건평가	교육 및 사례 모임의 실질적 도움 정도, 더 필요한 요소
사업 종료 후 계획	개인적인 일자리 계획		

면접 조사 참여자의 현황은 아래 <표 1-2>과 같다.

[표 1-2]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직위	참여자
단체 및 기관장	2명
사업주체 실무자	4명
가정 파견보육사	7명
마을(거점)보육 보육사	2명
솔루션위원회 위원	3명

관련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통합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가정 중심의 사회연계 서비스(*community-based family-centered comprehensive social services*)'로 정의한다. 통합 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첫째, 서비스 목적은 보육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아동·부모·가정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활성화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은 보육 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셋째, 서비스 내용은 대상과 목적의 포괄성에 조응하여 아동의 교육, 건강, 신체적·인지적 활동 지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용, 소득, 물리적·정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사회연계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서비스는 개인 또는 가구별로 대상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육, 간병, 가사 등의 영역별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서지원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통합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돌봄서비스

1. 돌봄과 공공성 증진
2. 지역사회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돌봄과 공공성 증진

[1] 돌봄의 이중적 측면 : 관계와 노동

근대이후 시민은 무엇보다 노동하는 사람이었고, 이에 따라 독립성을 전제로 한 시민의 정체성과 보호 또는 의존을 상징하는 돌봄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인식되어 왔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독립성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인지되는 경향이 있고, 돌봄은 시민들의 일과는 거리가 먼 잔여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적인 삶에 대한 언술에서 인간이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돌봄의 교환이 정서적·물리적 에너지의 상호교환이며 교환의 과정이 타인의 상황에 개입하고 반응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아에 대한 반성을 심화시키는 창조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특히 돌봄은 성별 역할 분업 구조와 연계되어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소위 공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생산적인 일과 무관한 여성의 일로 접근되면서 사회적인 일 또는 공공의 일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소하고 사적인 일로 정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 돌봄이 공적인 일에 비해 하위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현실적 위계 속에서 여성과 돌봄의 관계는 양가적인 관점을 띠게 되었다. 즉 돌봄은 사적인 가족에 초점을 맞출 때 어머니라는 역할의 존재 기반으로 여겨지는 한편, 생산노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혹은 여성과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 평가는 돌봄 자체에 깃들어 있는 “관계”와 “노동”의 이중적 측면을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돌봄은 감성적 측면(care about)과 일로서의 보살핌(care for)으로 결합된 행위로 정의된다(Ungerson, 1993). 즉, 돌봄은 한편으로는 특정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타인에 대한 물리적인 보살핌, 육체적인 노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맺음에서 비롯되는 애정과 정서적 밀착, 심리적 유대까지를 포함하는 정서적 활동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 두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으로서의 측면을 갖는다.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탁이나 요리와 청소 등, 그리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먹거나 입고 걷는 것을 도와주고 간병을 하는 물리적 지원 형태들의 수행은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돌봄 노동은 표준화된 시간계획 속에서 일정한 노동시간을 투여하

면 되는 생산노동과는 달리 계획된 것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시간 투여의 불확실성은 특히 타인의 일상생활 리듬과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물리적 돌봄 노동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둘째, 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 돌봄은 심리적 밀착을 통해서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는 행위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 그리고 애정 속에서 상대방의 필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융통성과 상황적합성은 돌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각기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특수성과 개별성의 논리는 돌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돌봄의 속성은 ‘합리적(rational)’이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해 계산에 의한 측량이나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간주됨으로써 다른 노동과 등가적이지 않은 것으로, 따라서 노동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Tronto, 1993; Twine, 1994).

[2] 인간 삶의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본 돌봄의 윤리와 시민정체성

돌봄은 주로 개별 가족 내에서의 관계라는 고립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을 폄하하는 근대사회의 속성상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특징 지워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돌봄이 종속적 관계 속에서 비가시적인 의무가 될 때의 경우이다. 반면에 대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돌봄은 정서적·물리적 에너지를 상호교환하면서 타인의 상황에 개입하고 반응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아에 대한 반성을 심화시키는 창조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시민적 활동이 시민적 연대(civic engagement)를 기반으로 하는 일의 형태로 정의된다면, 그것은 특성상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활동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유대(social ties)를 증진시키는 일이어야 한다(Putnam (ed.): 2002).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맺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적 유대야말로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상호성에 입각한 보살핌(nurturing reciprocity)은 사회정의와 시민연대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즉 인간의 삶 전체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활동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돌봄은 생산노동 또는 근대적인 일에 부가적인 지원 활동이기 보다는 근대적 시민의 보편적 일상으로 재평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돌봄을 비가시적인 의무가 아닌 공공 윤리의 기초로서 온전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키테이(Eva F. Kittay)가 주장한 돌봄의 공공윤리(an public ethic of care)에 따르면 “인간 의존의 사실(the fact of human dependency)”에 기초해서 돌봄의 윤리가 생성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영유아 시기나 죽음을 맞이 전의 노인 시기 혹은 환자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을 경험한다. 즉,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거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존(dependency)이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의존에 내재한 취약성(vulnerability)으로부터 상호 돌봄에 대한 윤리적 의무가 발생한다.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상호 돌봄의 관계가 없이는 사회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 행위 자체를 지키고 보살피는 공공윤리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Kittay, 1999).

그런 점에서 돌봄 윤리는 우리가 서로 보살필 때 그것은 서로를 공동체의 친구로 인식하기에 가능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윤리는 의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낙인을 찍거나 돌봄의 이름하에 단순한 구빈 형태의 보호만을 제공하는 시장의 관행을 시정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돌봄을 시민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Held, 2000: 30~32).

[3]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본 돌봄의 공적 가치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책임

돌봄이 사회적 기여라는 점은 돌봄, 즉 돌봄 관계 없이는 그 어떤 개인이나 사회도 생존하거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즉, 돌봄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는 인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존재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의존관계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관계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돌봄의 윤리는 타인이 제공하는 돌봄이 없으면 생존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취약성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의존의 사실에 근거해 모든 인간은 의존자와 의존노동자 간에 형성되는 의존관계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의존자는 어린 아이, 노인, 장애인 혹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며, 의존노동자(dependency worker)는 의존자에게 자신의 노력과 관심, 즉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의존 노동은 의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존 노동자의 노력과 관심이 의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는 의미에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역설적이게도 돌봄의 윤리적 책임은 바로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에서 나온다(Kittay 1999, 38). 나의 행동에 다른 사람의安危(安危)가 전적으로 달려있다면, 나의 행동에 의지하는 그 사람의 취약성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윤리적인 책임이 나에게 요구된다(Goodin 1985, 109-117).

의존노동자는 의존자의 안녕(安寧)과 행복에 책임을 지고 헌신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반면, 의존자는 의존노동자의 책임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만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왜곡 없이 돌봄노동이 수행될 경우 의존노동자는 의존자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게 자신의 노력과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의존자에 대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의존자 또한 의존노동자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돌봄행위를 둘러싼 평등한 윤리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의존자들의 사회’에서 돌봄의 윤리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개인의 윤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즉 돌봄노동자에게도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윤리로서, 구체적으로 돌봄노동자가 제공하는 돌봄노동을 사회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Kittay 1999, 37). 절대 의존을 경험하는 의존자의 상태가 1차 의존이라면, 돌봄노동자는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2차 의존성에 놓이게 된다. 돌봄수혜자가 경험하는 1차 의존은 그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인 반면, 돌봄노동자가 경험하는 2차 의존은 구조적인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1차 의존은 돌봄수혜자가 겪는 육체적, 물리적 취약 상태인 반면, 2차 의존은 돌봄노동자가 겪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취약 상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키테이는 돌봄의 공공윤리, 즉 돌봄의 사회적 책임 원리로 돌리아(doulia)를 제시한다. 돌리아는 그리스어로 노예나 봉사자, 또는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돌리아는 사회가 바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이는 사회전체가 돌봄노동자를 돌보아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Kittay 1999, 133; 2002a, 242). 돌리아적 관점에서 볼 때 돌봄을 주고받는 1차 의존관계는 사적영역을 넘어 공적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부담과 비용을 돌봄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키테이는 돌리아의 원칙을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돌봄노동자와 돌봄수혜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의존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제도는 돌봄노동자가 사회적 협력(social cooperation)의 경쟁 속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돌봄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발전시킨다(Kittay 1999, 109).

결론적으로 돌리아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돌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즉 돌리아는 사회가 돌봄관계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돌봄관계에 내재한 사회적인 본성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공적가치를 인식하게 만든다(Kittay 1999, 71 & 109). 그런 점에서 협력체로서의 사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상호 교환과 계약에 의한 협력체가 아니라 의존적 개인들이 돌봄관계 속에서 서로 연루되어 있는 형태에 기반을 둔 협력체이다(Kittay 1999, 68).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돌봄의 관계 속에 얽혀 있는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할 때 돌봄의 공공윤리란 아이, 노인, 아픈 사람, 장애인 만이 아니라 의존관계 그 자체를 돌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공윤리 하에서는 첫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둘째 돌봄노동자를 보살피며, 셋째 돌봄 필요자와 돌봄 제공자 사이의 관계를 보살피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돌봄의 대상에 해당된다.

돌봄 윤리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모든 시민이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존에 대한

돌봄의 기여가 사회적이며 공공의 안녕과 관계된 시민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돌봄은 윤리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돌봄은 그 자체로 윤리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돌봄과 돌봄의 요구에 대응해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제도화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1] 돌봄과 사회적 돌봄서비스

돌봄을 공적인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민들의 돌봄과 돌봄의 요구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돌봄을 공공재로 접근하는 공공서비스로 볼 것인지 공공재를 넘어서는 “사회” 영역의 사회서비스로 접근할 것인지는 돌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된다.

국가가 개입하는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해당된다. 돌봄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입장은 돌봄 노동을 받는 의존적 아이가 이후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보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돌봄을 받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둔다. 돌봄이 공공재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단순히 소비되어 버린다면 사회에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경우, 회복될 기망이 없는 아픈 사람이나 사회에 기여할 기간이 짧거나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과 같은 집단에 대한 돌봄은 의존 극복의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없다.

반면에 돌봄 부재 현상을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으로 정의하는 경우 돌봄은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주로 후기 복지국가에 들어서 시도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서비스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서처럼 사회적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된다. 돌봄서비스의 출현은 핵가족화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모든 사회에서 공통된 과제로 부상한 ‘돌봄의 위기(care crisis)’에 대한 인식에서 출현하였다.

‘돌봄’이라는 용어는 정책과 실천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라는 용어가 정책적 의미를 더 잘 드러내준다고 주장되기도 하지만(Boddy, J., C. Cameron, & P. Moss, 2006: 2-5). 아직까지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돌봄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개입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Roche & Rankin, 2004; Boddy, J., C. Cameron, & P. Moss, 2006: 5에서 재인용)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Daly, 2000). 일정 정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연령대

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신체수발, 가사 지원, 식사영양, 의료 및 재활, 이동지원, 기타특별서비스 등이 있다.

[표 2-1] 정책 부문별 사회적 돌봄서비스

	사회보장	노동시장	교육	의료	세제
서비스	공보육, 가정도우미, 식사배달서비스	직장 보육시설	각종 보육시설	시설 서비스	-

* 자료 : Daly, M.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이로써 돌봄은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었으며 대인서비스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성과 개별성이 혼재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서비스로서 돌봄서비스는 공공성을 주로 담당하는 공공영역과 개별성에 강점을 가지는 민간영역의 협력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돌봄이 조직됨으로써 돌봄은 그간 인지되지 않았던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재규정되었다. 노동으로 새롭게 정의된 돌봄은 공공영역이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돌봄뿐만 아니라 가족원이나 친척 등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돌봄 노동은 가족과 국가, 사회의 공사 연속성에 놓여 있으면서 다양하고 혼재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돌봄 대상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중점을 두는 대상 집단이 아동 혹은 노인 등 다르기도 하다(Boddy, J., Claire Cameron & Perter Moss, 2006: 3). 2002년에 EU에서 진행했던 “유럽의 돌봄노동: 현재적 이해와 미래 방향(Care Work in Europe : Current Understandings and Future Direction)”에 의하면 돌봄 노동은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에서 어린 사람을 돌보거나, 주거지 혹은 거주시설에서 낮 시간에 어른이나 노인을 돌보고, 아동보육시설 등에서 아동을 돌보는 유급노동”이다. 한편 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이하 European Foundation)의 “사회적 돌봄 부문에서의 노동력 공급(2006)”에 관한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연령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도움(the Help)”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돌봄은 공공영역, 자원봉사 영역, 사적영역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도움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의미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다소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서비스를 교육·보

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보육서비스 ②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③ 살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서비스는 그 범위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육, 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 등으로 활동의 영역에 따라 개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혼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복지국가가 보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보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제공자들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정도는 사회가 시민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돌봄의 윤리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차별적이다. 하지만, ‘돌봄은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이며 이때 비용은 정서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돌봄은 의존적인 성인과 아동의 물리적·정서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관계적 활동이며, 이는 규범적·경제적·사회적 구조 속에서 할당되고 수행되는 활동이다(Daly and Lewis, 1999).

[2] 사회적 돌봄과 통합 돌봄서비스

최근 들어서 서구 국가들에서 돌봄은 교육, 주거, 건강 등 다른 영역들과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개념이 넓어지고 있다(Boddy, J., C. Cameron, & P. Moss, 2006). 영국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사회적 돌봄은 광범위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와 개별 서비스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사회적 돌봄은 가정, 주간센터, 또는 거주시설, 너싱홈 등에서의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서비스나 장애인을 위한 가사조력 그리고 양육서비스 또한 사회적 돌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http://www.dh.gov.uk>).

우리 사회의 경우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적 돌봄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3~4년간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노인분야의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제도 속에 포함된 각종 수발 서비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사업 등이 출현하면서 서비스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서비스 대상은 아동뿐만 아니라 신생아, 산모, 환자, 노인, 중증 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로 확대되어 왔고, 서비스 영역 역시 보육, 교육, 취업/훈련, 문화/여가, 간병/간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은 적어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들에 대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으나,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저소득층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아동인지능력향

상 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역시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역시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다.

아동이나 성인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돌봄은 보호, 교육, 이동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관계 유지 등을 통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라는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사업으로서도 현행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에는 전달방식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아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발달상의 과업과 교육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와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함께 지원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비스는 주로 아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들 역시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 표 2-2 】 한국 돌봄서비스의 구성

구분	대상	내용	제공기관	
보육 사업	드림 스타트	임산부 및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기초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방문(개별화된 진단/검사, 방문보건, 교육) 보육센터프로그램 가족지원서비스 부모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 현물/현금지원 	시·군구 소속 드림스타트 센터
	아이 돌보미	평균소득 100%이하 3월~만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임시보육, 병원송영서비스, 안전 및 신변보호 처리, 놀이활동) 	건강가족지원센터
노인 돌봄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혜요양비) 	시설급여제공기관 재가급여제공기관	
사회 서비스 바우처	노인돌봄 서비스	만 65세이상 가구소득 평균150%이하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B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말벗, 외출동행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1급 등록장애인 (만6~65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보조(안내활동보조인, 대리운전, 등하교, 출퇴근지원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외출동행 등) 의사소통보조(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장애인단체

구분	대상	내용	제공기관	
사회 서비스 바우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국생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65세이상, 장애1~3급,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말벗, 외출동행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평균소득 100%이하 6종 장애아 만18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치료, 행동, 미술, 놀이, 음악, 인지·학습, 물리·재활, 감각, 심리치료 	복지관 시설기관 장애인단체 병원
	지역사회 서비스	평균소득 100%이하 18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인지능력향상(아동체험, 문제해결, 청소서비스, 안마, 맞춤형 운동) 	
		경도(비만지수20% 이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만아동건강관리(다문화가정, 아동 정서, 기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평균소득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관리(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관리(목욕, 제대관리, 건강 및 예방접종) 가사도움(식사, 세탁, 청소)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사회적 돌봄은 사회적 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 또한 돌볼 수 있을 때 돌봄의 상호 의존 관계의 성격을 균등하게 하고 불안정한 생활상의 위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 돌봄 제공 노동자들은 공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및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돌봄 노동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로써 돌봄 노동자들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바우처 시장이 생성됨으로써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적정 소득 보장 문제는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노인 돌보미, 아이 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등으로 자격증 취득 또는 인증기관을 통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바우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단순한 돌봄이라고 인식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외한 바우처 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이수 는 여전히 당사자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창출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의 성격을 띠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지원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가져온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체계적인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가 육체적인 노동의 전문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맺음에서 비롯되는 유대와 이를 통한 신뢰 구축 또한 포함하는 것이라 할 때, 유사 시장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바우처의 돌봄서비스는 돌봄 노동자가 돌봄 노동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부담의 문제에는 대단히 둔감하다는 난점 또한 가지고 있다.

[표 2-3] 한국 돌봄인력 구분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과정 및 시간	교육기관	교육비	규정	관리	교육비
노인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2급 또는 도서벽지 이웃주민서비스는 자격증 구비 면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 교육원 (노인요양보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자부담 서비스 제공기관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 규정 준용 (2년마다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 기관 자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원 없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교육: 기본 40시간 유사경력자교육: 기본 교육20시간(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복수 지정 (2개 이상) 제공기관이 모집하여 일괄교육위탁 가능 최초서비스 제공시 8시간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10만원 (정부:본인 1:1) 유사경력자: 5만원 (정부:본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 기관 자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원 없음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2급 또는 지정교육기관 가사간병교육이수 타 교육기관 120시간 이상 가사간병 교육 이수한 방문도우미 경력자(후 보수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 교육원 (노인요양보호사) 전국 5개 지정 가사간병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 자부담, 고용보험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적극지원 요양보호사는 규정 준용(2년마다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 기관 자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원 없음
산모 산생아 도우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교육: 80시간 경력교육: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에서 교육인원 접근성 고려하여 지정(2개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1인당 심화 또는 경력자 과정 정부지원 1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년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 기관 자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원 없음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통합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상품화된 돌봄 시장은 의존과 돌봄의 욕구를 소득계층과 구매 역량에 따라 분절시킴으로써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삶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패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떤 경우여라도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보육서비스는 첫째, 가정, 또래집단,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 등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조건과 둘째, 가정-육아지원기관, 가정-지역

사회, 육아지원기관-지역사회가 만드는 돌봄의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직장, 친구의 가족, 지방정부, 사회적 가치와 문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등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련된다.

통합적 관점에서 보육을 파악하는 이러한 접근은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주변의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발달하는 존재로서 아동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부모를 비롯한 가족, 지역사회 등의 상황과 변화까지 고려하면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Angela Miller, 1990, *The Day Care Dilemma : Critical Concerns for American Families, New York and London : Plenum*). 이를 위하여 서비스 간 통합(integration), 연계(linkup), 공동협력과 제휴를 통한 새로운 체계 창조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보육 종사자와 아동, 가정, 지역사회, 다른 보육 및 복지관련 기관들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본다.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발달적 욕구 외에도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다. 시민들의 역량이 증진되는 것은 개별 구성원 간, 가족, 사회적·물리적 환경간의 상호복잡하게 연루된 접속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들 환경에 의하여 개별 구성원의 활동이 조형되기 때문이다(Germain & Bloom,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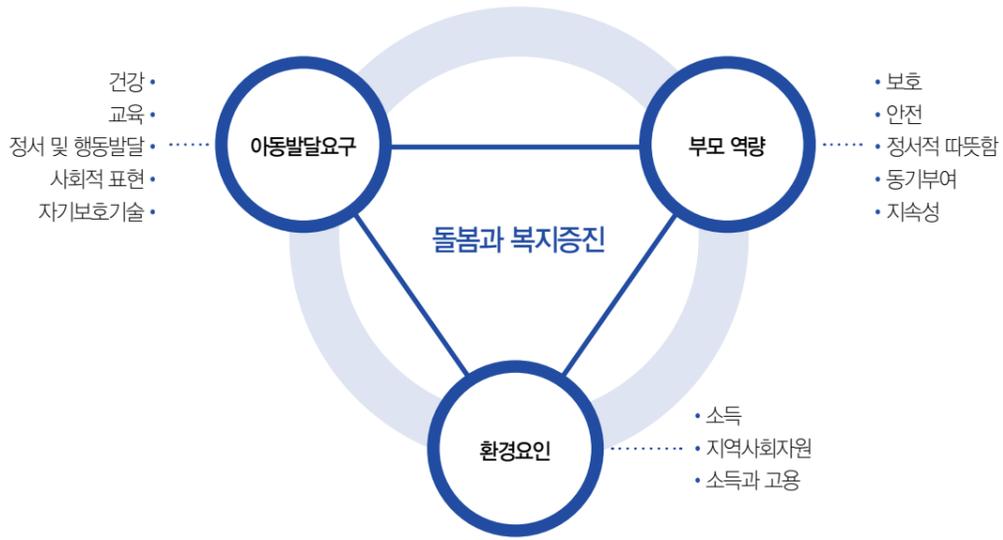
이러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기반 서비스가 지역기반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가족기반 서비스와 지역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가족 기반 서비스(family-based services)

영국 보건국이 활용하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문제 진단의 틀(그림 2-1 참고)은 돌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아동의 건강, 교육, 정서 및 행동발달과 사회적 표현 그리고 자기 보호 기술 함양이 지원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과 지지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에게 아동과의 따스한 정서적 교류, 아동 양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속성 유지, 보호, 안전 기술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아동의 상호 지지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고용과 적정 소득, 그리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서 개별 사회구성원에 접근할 때 아동 돌봄서비스는 취업을 통해서 부모가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A. Kadushin & J. Martin, 1992: 190), 자아실현 욕구 및 심리적·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모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력 있는 시민 활동을 유지하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다. 취업, 경제적 안정, 신체적 안전을 넘어서 가족들을 보다 더 큰 지역사회, 사회적

[그림 2-1] 영국의 문제진단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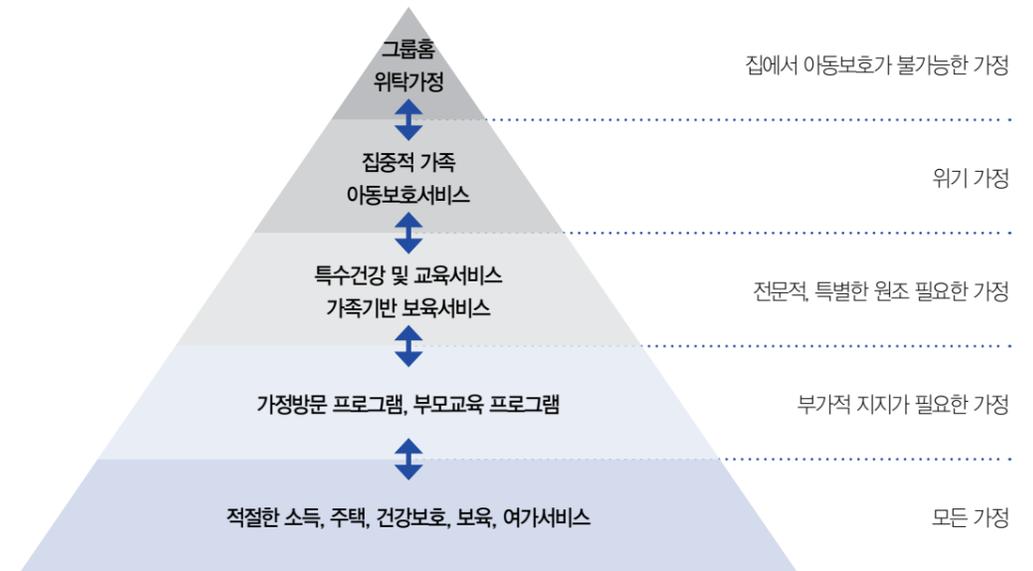
지원망, 공식/비공식적 지원처, 공공기관, 민간섹터, 비영리 기관 등과 연결시켜 주는 일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역할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통합 돌봄서비스는 개별 사회구성원과 그들의 가정이 처한 상황과 위기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단계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과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소득과 건강, 보호, 보육, 주택과 여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부가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문제 상황에 따라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집중 서비스나 전문적인 도움 등이 단계별로 제공될 수 있다.

가족의 요구에 입각한 서비스는 사례관리, 상담/치료, 교육, 기술 훈련(skill-building), 대변, 혹은 문제가 있거나 불안정한 가족에 대한 물리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New Mexico)에 위치한 아코마 인디언 리저베이션(Acoma Indian Reservation)의 부모-아동 발달 프로그램(Parent-Child Development Program(PCDP))의 경우 가정방문자는 교육의 모델로서 활동하며 아동발달상의 지체 등을 체크하여 특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센터와 연계시켜 준다(Galinsky & Hooks, 1977). 이런 서비스는 시설 서비스와 가정을 연계하고 서비스 대상을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서비스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킨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 부모-아동 센터(Parent-Child Centers)인데, 이 센터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보건서비스, 직업훈련, 발달적 교육, 다른 기관과의 의뢰, 가족의 응급 상황시

¹ Social Care Group, Department of Health. 1999.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children in need and their families*, London,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Health

[그림 2-2] 가족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피라미드²



모금)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부모-아동 센터를 이용한 부모들은 아동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였으며 센터에서 제공한 직업훈련과 보건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O'Keefe, 1979). 즉, 가족을 단위로 한 돌봄서비스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능력 신장에 기여한다(Anthony & Cohler, 1987; Rhodes & Brown, 1991; Weissbourd, 1996).

② 지역 기반 서비스(community-based services)

위에서 언급한 가족구성원의 능력 신장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는데, 지역 자원들이 주요한 자원 파트너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가족 구성원의 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지역 서비스는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원, 도서관, 박물관, 지역센터, 복지관 등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서비스로서 지역사회가 공공성 확장에 끼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지역 자원들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사회구성원들이 더 현명하게 정보와 지지를 선택할 수 있다(Whittaker & Garbarino, 1983: 217).

예를 들어, 미국 미네애플리스 남부 아동보호 자원센터(Child Care Resource Center)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자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² Children's Defense Fund, 1993(December), Family Support, CDF Reports, 15. Susan W. Downs et al., 2000(6th ed.), Child Welfare & Family Services, London:Allyn & Bacon

부모와 아동의 욕구에 맞게 보육시설 혹은 가정 보육사와 부모를 연계해 주는 것이다. 또한 가정 보육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공급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기본적인 돌봄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아동 보육사 연합'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돌봄서비스의 취약부분인 영아보육프로그램(Infant Care Incentive Program)을 위하여 지역사회개발기금을 통해 영아 보육사들에게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 외에 매주 \$5을 더 지불하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호자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동 보육사 연합'은 돌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보를 수집하며(보육교사, 가정보육사, 방과후 보육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들과 공통 관심을 공유하는 포럼을 운영하기도 한다. 센터는 또한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아동들의 이용 시설 및 청소년을 둔 부모 집단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놀이집단(play groups)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모와 돌봄 노동자에게 정보와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과 돌봄 노동자들의 정서적 지원까지 충족시켜주는 사업들은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고자 시작된 것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모은 후원금과 대응금(matching grant)으로 운영된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둘러싼 각 주체들은 사업 과정을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비용을 감소하면서 서비스는 최대화 하고자 협력하게 된다(Whittaker & Garbarino, 1983: 208-209).

요약 하자면 통합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원(Support), 기회(Opportunity), 지원망(Networks)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공식적·비공식적 돌봄을 연결하는 것이고, 기회는 소득과 자산 획득 수단을 연계하는 것이며, 지원망은 공통으로 문제해결의 과제를 지닌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Nittoli, 1999). 이러한 다각도의 연결과 연계를 통해 상호 단절된 전문적 서비스를 넘어선 합작(collaboration)이 가능해지고 이로써 돌봄 문제에 민감한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체계가 창조될 수 있다.

Chapter 3

통합 돌봄서비스 유형과 성격

1. 정부주도 포괄적 보육서비스
2. 민관 협력 포괄적 돌봄지원
3. 민간주도 지역연계 돌봄활동

2010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지원 RESEARCH REPORT



정부주도 포괄적 보육서비스

정부주도 포괄적 서비스란 정부로부터 보육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주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보육서비스만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처한 가족·사회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저소득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를 대신 양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소득의 보장과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 아동의 신체적인 보호와 영양 공급을 통해 안전과 생존을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었다(Melhuish & Moss, 1991). 그런 점에서 보육을 부모대신 일정 시간동안 아동을 맡아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보육의 다양한 목적 중 한 가지의 수단적 역할로 제한하는 것이다.

‘포괄적 보육서비스(comprehensive child care services)’는 보육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에 대한 요구로 출현하였다. 보육의 사회복지 서비스란 아동 복지서비스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원·유지·보존시키고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 포괄적인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Karmerman & Kahn, 1976, 1978; Mitchell, 1989; Roditti, 1995; Hildebrand & Hearron, 1995, 1997; 이옥, 1991; 위영희, 1991; 김현숙, 1992, 1996; 표갑수, 2000 등). 이는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정 및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총체적 의미의 건강한 양육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포괄적인 보육은 단순히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의 개별적 상태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른 이러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보육교사인데 교사의 아동관찰과 욕구사정을 통해 개입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아동 혹은 부모에 대한 개별적 접근에 의해 기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일차적인 서비스가 수행된다.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빈곤가정 아동 지원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즉,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정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 지원 활동 및 프로그램을 포함시킴으로써 약화된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가정의 계층적 차이와 문제들에 대한 사회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의 보육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연결시키며 조직과 연대를 통해서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자원 활용은 보육서비스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기관을 활용

하는 것과, 보육 아동과 가정의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거나 동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지역상점의 식품이나 생활용품 후원으로부터 전문기관(예: 병원,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보조 및 기술보조, 지역조직을 활용한 교사교육 등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육대상 아동이나 가정,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Kinch & Schweinhart, 1999). 지역사회 연계조직은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발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는 미국의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한국 Dream start 등의 사업에서 이루어져 왔다.

[표 3-1] 각국의 저소득층 아동지원 포괄적 서비스

명칭	미국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한국 Dream start
배경	the Great Society 관련 '빈곤과의 전쟁'에 따른 개입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최상의 출발 조건을 제공하자	정부 주도의 빈곤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개입 필요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의 인지, 사회, 및 정서 발달을 강화하여 학습 능력을 증진시킴	빈곤층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교육과 건강에의 불평등 제거와 부모의 직장생활 보장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육을 통합한 예방차원의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
대상	3~6세(Early Head start: 0~2세) 90%이상 빈곤 아동, 10%미만 장애 아동	영국 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0~14세 아동	임산부 및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기초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주관 기관	연방정부 산하 아동가족 전담 부서인 헤드스타트 부서에서 위탁 운영	11개의 정부부처 관리 하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센터 및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시·도의 관리하에 시군구 소속 드림스타트 센터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을 위한 교육, 의료 보호, 사회 복지 서비스, 영양공급 등,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며 개별화된 지원 지역사회, 부모양육에 대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탈지수가 낮은 800명 이상이 거주하는 하위권 지역에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교육, 보육, 건강 그리고 가정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방문을 통한 지원, 보육센터 프로그램 제공 가족지원서비스 부모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자립 촉진 아동에게 필요한 개별화된 진단/검사, 방문보건, 교육/집단프로그램, 현물/현금지원

각국에서 실시하는 Start 프로그램은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건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부모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최대한의 발전가능성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초기 교육(early education), 보육(childcare), 건강(health), 가정지원(family support)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의 Start Centres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들을 연계시키는 형태로 제공된다.

[1]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64년 존슨 대통령의 the Great Society와 관련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있는 연방 주도의 아동지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빈곤 아동 대상으로 8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이후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오고 있다. 초기에 헤드스타트의 대상 연령은 3~5세인데 1994년부터는 0~2세 영아에게 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의 인지, 사회 그리고 정서 발달을 강화하여 학업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한 교육, 의료보호, 사회복지서비스, 영양 공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그 외 종합적인 지역사회부터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부모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입이 이루어진다.

개입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아동이 동일한 환경, 발달 속도로 자라지 않음을 감안한 교육으로 개별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사용하고 가족과 협력관계를 맺어 구체적인 개입을 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건강, 발달, 감각, 행동에 이르는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보다 세밀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 발견 시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SFP)’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는 계획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대상 아동의 10%는 장애 아동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있는데 장애유형 등 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라 교육과 건강·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로는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취학 준비를 지원하고, 교과목 영역에 따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거나,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강·위생·영양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며 아동의 안전교육을 지도하는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한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곤계층의 아동은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자신감이 증가하고 진학률이 높았으며, 위법행위가 줄고 10대 임신율이 낮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공공 부조 대상자가 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Mckey et al., 1985; Copple et al., 1987; Zigler, Taussig, & Black, 1992; Yoshikawa, 1994).

[표 3-2]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교사수준 개선	헤드스타트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사임금 인상을 포함한 사업 개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기금을 동원하도록 함
사업 확대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이주민자녀 헤드스타트(Migrantand Seasonal Head Start), 원주민자녀 헤드스타트(Indian Head Start)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1만명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일반예산 외에 추가예산을 통과시킴(4만5천만달러)
취학준비프로그램 강화	아동의 읽기·쓰기능력과 어휘력 개발을 위하여 연구결과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현장실천을 강조함
프로그램 관리운영과 부모 참여도 제고	부모정책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사이에 상호제어구조를 형성하게 하여 헤드스타트에 참여하는 빈곤가정의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지역 요구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함
포괄적 건강영양서비스 강조	빈곤아동 및 그 가족의 정신 보건 욕구에 대한 조기진단과 아동비만 감소에 초점

[2] 영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역시 영국 정부가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최상의 출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건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부모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최대한의 발전가능성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로 중앙정부에서는 방향 제시와 관리 역할을, 그리고 개별 프로그램은 각각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을 구성하고, 지역 프로그램은 Sure Start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총체적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영국에서 524개의 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Sure Start 센터는 지역사회 협력체나 부모 포럼 등과 직접 연계한다.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들의 전문가 또는 담당자를 20명 정도 배치하고 그 중에 3명이 상근직원이고, 나머지는 비상근 직원이다. 비상근 직원은 지역사회 특정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지역사회 Sure Start 프로그램에 따라 Sure Start 센터에 일주일에 1~2일 정도 파견 근무를 한다.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Sure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방정부, 직업안내소 혹은 확대 직업안내소, 1차 진료 센터 혹은 기타 지역 보건소, 아동센터, 공립 및 사립 유아원, 조기 영재 센터, 예비학급, 시간연장학교, 초등학교 등 다양하다.

지방 Sure Start의 첫 번째 작업은 비영리, 민간, 보건, 교육, 지역사회 관련 자원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정부는 이 계획을 확정하고, 다시 지방협의체와 함께 재정조달 계획과 분배, 즉 서비스 위탁 방법을 수립한 다음 각 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을 배분한다. 공급자들은 Sure Start재정으로 영유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 교육, 가족지원, 보건 서비스 등의 등을 통합적으로 전달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Sure Star는 교육, 보육, 건강, 취업 등 영유아와 가족 대상의 포괄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센터(One-Stop Center)로서 기능한다. 즉, 영유아 교육, 보육, 시간제 보육,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보건서비스, 학령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문가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참여 서비스, 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 방문서비스, 정보제공, 부모에 대한 조언과 지지, 네트워크 구축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학교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평생학습과 가족학습을 제공하며 부모의 빈곤 탈피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하고, 범죄감소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한국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지역(1~2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신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한국형 포괄적 빈곤아동 조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모델로 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전국 16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당시 '희망스타트'), 2008년에는 32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현재는 복지부분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2009년 75개 지역, 2010년에는 총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지원단이 사업의 전체적인 기획, 직원 교육, 사업홍보, 사업평가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만들어 3~4인 정도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3~4인 정도의 민간수행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지역마다 총 6인 정도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봉주, 2010).

200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규모는 75개 센터당 300명, 총 22,500명 정도이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라는 드림스타트의 전체 서비스 대상 아동은 총 47만명(08년 0~12세, 아동수 707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비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는 미미하지만, 건강, 보육, 복지의 세 가지 큰 유형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드림스타트 센터에는 복지·교육·보건 등 세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

에게 가정방문, 건강검진, 영유아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게는 방과후 학교를 열어 지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습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써, 드림스타트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는 아동 및 그 가족의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사례회의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 발달 증진, 보육서비스 및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지원, 그리고 복지 서비스이다.

[표 3-3] 드림스타트 서비스

분야	내용	사업수행기관 연계협력기관 (인력)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프로그램,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지역 내 보건의료 통합연계망 	드림스타트 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정서지원서비스 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드림스타트 센터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지도 가정방문, 보육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임어주기 등 발달지원서비스 	드림스타트 센터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 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부모 자녀양육능력 강화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지역 보건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드림스타트 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하지만, 아직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매년 예산편성, 인력확보 방안 등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3~4인의 전담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의 확대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파견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 아동의 연령층이 0~12세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학령기 대상이 전체 대상아동의 절반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고른 출발선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3-4] 드림스타트 유아 대상 영역별 프로그램

영역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아동 발달	신체/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체력 측정 건강 검진 구강 검진 및 구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발달 스크리닝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 접종 건강 상담 보건 교육 병원 치료 영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건강검진연계 예방접종 실시 연계 비만관리 천식 아토피 예방 및 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지원 영양보충지원(유제품영양제 등) 허약 아동 한방 의료서비스 지원
	인지/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학습지원 입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책을 이용한 인지 능력향상 프로그램 한글, 수 학습지도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지 지원 독서지도 특기적성 교육지원 언어평가 및 언어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 구연 유아 가베교실 미술나라 음악교실 경제교육 시장놀이 다중지능 검사 연계 전문치료기관 연계
	정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 및 사회성 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도프로그램 예절교육 도자기체험교실 주말농장프로그램 전문치료기관연계
양육 환경	신체/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 및 위생 관련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병하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예방 교육 물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이동유해환경 예방프로그램 소방교육 의약품 지원
	인지/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교육 관련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 발달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이동식 도서관 및 장난감 대여 어린이집 연계 아간보육 연계
	정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기술관련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아이와 소통하는 멋진 부모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체험학습 부모상담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와 함께 요리교실 전문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경기도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들 수 있다. 무한돌봄센터는 2009년 1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시·군 무한돌봄센터간 협력을 통해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 중심의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주민자치센터나 집 근처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한 차례 기본적인 상담을 받고 나면 해당시설에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혹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도움을 받아 지역단위의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의뢰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아이가 있을 때 기존의 복지체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입만 하고 노인과 아이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거나 2~3개 사회복지 기관이 합동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현재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위기가정 DB 구축으로 관련 단체가 모여 주사례기관을 선정하고 윈스톱·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로서,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① 위기상황이지만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② 긴급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실직, 사업 실패로 위기 상황을 맞은 가정, ③ 긴급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한돌봄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에 한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에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9개 항목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항목 별로도 지원된다. 첫째, 생계비(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근로 무능력자의 경우 위기 해소시까지 무제한 지원, 근로 능력자의 경우 3개월 간 지급) 둘째, 의료비(각종 검사 및 치료 등에 따른 비용지원, 기간제한 없음) 셋째, 교육비(수업료, 학교운영비 미납분, 입학금) 넷째, 주거비(가구원수와 지역 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3~4인 가구의 경우 월493천원)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이용(406천원 / 1인·월) 여섯째, 연료비(월100천원 / 가구, 년1회 지원) 일곱째,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1회 500천원, 년1회 지원) 등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한적인 시도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다원화되는 공급방식으로 인하여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해나가기 위한 지역사회 내 기관간 협력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기관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서비스가 의존자들을 복지의 수혜자로 대상화 한다는 점에서 돌봄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사회복지 논의는 주로 빈곤문제에 주목한다. 빈곤은 개인의 실패로 여겨지고 빈곤으로 인한 정부에의 의존은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반면, 빈곤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로 정의하고, 복지가 시장의 실패로 인해 희생자가 된 개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즉 일을 하는 또는 할 수 있는 개인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돌봄 사회로의 변화를 이루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개인을 변화시켜서건,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건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인식은 결국 의존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실존조건이기 보다는 제거해야 할 그 무엇으로 접근되기 때문이다.



민관 협력 포괄적 돌봄지원

민간 협력의 포괄적 돌봄지원이란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아동과 가정이 처한 문제를 개별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돌봄 지원을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보육서비스 유형이다. 이러한 지원의 형태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가족친화관련 기관과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하면서 '포괄적 돌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서 활성화되었던 대표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미국

민간단체나 재단 중심으로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각 지역사회의 가족지원센터 Family Support Center 포함하는) 미국의 가족지원 서비스 민간단체인 Family Support America를 들 수 있다. Family Support America는 1981년 Family Resource Coalitio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결성된 전국적 규모의 조직이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제공자 - 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전달방식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 내 포괄적 가족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에 있다. Family Support America는 헤드쿼터 본부와 전국에 걸친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정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각 지역단위의 조직은 지역 커뮤니티의 가족지원종사자 인력, 전문가,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의 가족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들은 서로 연계되어 조직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앙조직으로부터 행정적이거나 정보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주 사업 내용을 보면 Family Support America의 본부는 지역 가족지원 센터들을 대상으로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툴(tool)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지원센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가족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단위 가족지원센터는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둔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 이들 센터는 위기나 문제를 가진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에 있어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또한 기업이나 학교 등과의 공조 속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센터는 프로그램의 참여, 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갖가지 아동 및 청소년 현안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미국 가족정책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www.familysupportamerica.org), 이를 위해 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인프라로서 지지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는데, 그 중 주요한 축의 하나가 부모의 참여이다. 이에 따라 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관련자료 배포, 부모 자조 그룹 운영, 멘토링 활성화,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아동발달 관련 정보의 제공, 심화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referral) 등이 있다.

지역사회별로 가족지원센터마다 지향하는 것과 프로그램의 성격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각 센터들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가족지원서비스가 독립적인 센터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교회, 병원 및 임상센터 등 다양한 세팅(settings)에서 제공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성정현 외, 2004).

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를 범주별로 나누어보면 가족관련 정보 제공이나 심화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의뢰 서비스(90%), 부모교육(84%)이 가장 보편적이다.

[표 3-5] 미국의 지역사회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내용
정보와 의뢰(96)	아동발달/부모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과 배포, 기관연계(referral)서비스 프로그램
부모교육(84)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이혼전/후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관련 활동 서비스(73)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이민자가족 교육프로그램
아동발달 관련 서비스(70)	아동(청소년)인성증진 프로그램
지지집단 / 멘토링 서비스(66)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48)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 대처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지원 서비스(43)	부모 자조그룹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지원 아동보호 서비스(38)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참여지원 보육프로그램, 주간보호프로그램
건강보호서비스(37)	성인가족간호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노인건강프로그램

부모·자녀 활동지원 서비스(73%), 아동발달 활동관련 지원서비스(70%), 지지 집단 또는 멘토링 서비스(66%)도 대다수 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48%), 공동체 수립 활동 지원서비스(43%), 아동보호서비스(38%), 건강보호서비스(37%), 긴급지원 서비스(37%) 등이 제공되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직접적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정보와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호주

호주에서는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CCB)제도가 일반적이지만 교육, 고용과 노사관계부 DEEWR(The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이 재정지원을 하는 비주류 서비스(non-mainstream services)가 보육서비스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 놀이 그룹(Playgroup Australia)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놀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여년 간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놀이 그룹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캔베라에서 ‘호주 놀이그룹’이라는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놀이 그룹은 아동에게 안전하고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지역의 공간(지역 센터, 체육관, 여성 센터, 유치원, 교회 회관이나 이웃의 가정 등)들을 활용하여 그룹 모임을 한다. 모임에는 아동과 부모, 조부모, 보모들도 함께 참여한다. 놀이 그룹의 프로그램은 일정하게 짜인 것이 아니라 그룹에 함께 한 사람들이 놀거리를 결정한다. 대부분 노래 부르기, 창의적 활동, 자유로운 옥외 활동, 만들기 활동과 피크닉 등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거나 약간의 실비를 서로 거두어서 활용한다.

이처럼 자발적인 지역 주민과 아동의 모임인 놀이 그룹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친숙해지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도 촉진된다는 것이다. 놀이 그룹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호주 연방 정부가 놀이 그룹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지적 놀이 그룹(Supported Playgroups)’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7~2009년 동안 호주 전역에 200개의 ‘지지적 놀이 그룹’이 만들어졌다. ‘지지적 놀이 그룹’의 특징은 다문화가족, 원주민 가족,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아동의 가족, 10대 부모 가족,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놀이 그룹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른 놀이 그룹과 다르게 지지적 놀이 그룹에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운영하는 모임에 2~3개월 동안 꾸준히 주 1회 2시간씩 참여하여 놀이 그룹에서 활동하는 법을 습득한 사람이 다시 개별 놀이 그룹들을 만든다. 코디네이터는 놀이 그룹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던 지역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족들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부모역할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소외된 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경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설정되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지역성, 그리고 지역의 문제해결 = 주민·시민의 필요)’와 ‘비즈니스(=사업성)’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으로서,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고,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총칭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노동력, 원재료, 노하우, 기술과 같은 자원을 살려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에 대응하고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활력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현하였다. 즉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의 지혜가 필요했고, NPO법인에는 효율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점차 축소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NGO를 포함한 광의의 NPO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체가 보완 또는 대체체로서 출현한 것이다. 이들은 시민 및 지역의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을 하여 공공서비스의 일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재 발굴과 육성,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행정으로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발상에 의한 공공서비스 담당자로서의 ‘파트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치단체의 지원방식도 “지원금·보조금” 등의 지원보다는 다음 <표>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표 3-6] 지방자치단체 NGO 지원 방식

영역	내용
강좌·심포지엄	개발활동과 플랜 정리, 전문화
상담·정보제공	개별 원스톱 상담과 활동의 정보 수·발신
자금지원	컨테스트, 제안제도, 용자금 금리보조, 자금 융자
장소제공	인큐베이터 오피스, 빈 점포 제공
인재뱅크	지역인재 DB화와 매칭 지원
중간지원기구(intermediary) 설립	커뮤니티 비즈니스 설립 희망자에게 인가, 등기, 자금조달, 운영까지 단계별 전문가 동원하여 지원하는 기관 설립 운영

[표 3-7] 케어 관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p>동경 NPO법인 일본 육아 어드바이저 협회</p> <p>협회는 부모들의 다양한 고민과 불안에 대처하고 양육으로 인한 고독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육아지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발족하였다. 주요 활동은 육아상담, 육아어드바이저 육성 및 보육지원 파견사업 등이다. 창업 계기는 베이비 시터 파견회사(株)킨더네워크, 1986년 설립)를 경영하던 중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 뿐 아니라 육아에 대한 고민 상담도 많음에 착안하여 설립하였다.</p> <p>1999년에 「육아어드바이저」 활동을 시작,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인맥을 통해 독자의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2002년 NPO법인을 설립하였다. 당초, 강좌의 수강생은 육아경험자인 주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육아 미경험자인 젊은 보육사나 간호사, 교사 등의 유자격자나 현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로 수강하며, 남성 수강자도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 4년간 수강생은 2천명을 넘어 약 700명의 어드바이저가 탄생했으며, 유급 상근직원은 6명이며 회원수는 546명이다.</p>
<p>프리스쿨 무사시 학원</p> <p>무사시 학원은 등교거부, 학습장애, 다동성·학습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 보호자 지향의 교육상담, 개인지도, 그룹지도, 정보제공 등을 제공한다. 설립 초기 단체의 교육 상담 부분인 「의식교육클리닉」은 4개소의 의료기관 및 다양한 행정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등교거부, 등교지체, 고교중퇴, 학습장애, 다동성, 학력부진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학습지원사업으로 낮시간부, 야간부로 구분하여 전담강사가 개인, 개별, 그룹지도 형식으로 학습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 또한 제공하고 있다. 매월 웹매거진 「핫신(発信) 21」을 발행하여 지역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p> <p>창업 계기는 대표이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학원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등교거부 아동 및 학습장애 아동들이 출현하자 이들을 돕기 위한 교육상담 및 학습 지원활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후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2002년에 NPO법인을 설립하였고 지적 장애인을 위한 자원 활동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였다.</p>
<p>키라리비도 미야시로</p> <p>키라리비도 미야시로는 「곤란을 겪을 때는 서로서로」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서비스 제공에 주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활동이다. 사업내용은 회원제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부상조활동(약 45명)을 기본으로 탁노소, 방문개호, 거택개호지원사업, 시로부터 위탁사업, 복지교류센터 히다마리 살롱 등이 있다. 그 밖에 소규모 다기능홈 「키라리비도 히메미야(姫宮)」에서는 고령자 주간 보호서비스,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지적 장애인 그룹홈,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들 활동은 주로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다.</p> <p>키라리비도 미야시로 설립은 1995년 5명의 지역 주민이 모여서 가능한 고령이 되어도 요양원 보다는 자택에서 안심하고 살고 싶다는 취지의 연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간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고령을 맞고 싶다는 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서로 간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주민을 시작으로 하여 임의단체 「사와카키복지회 하트풀미야시로」가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 당시 회원수는 약 8명이었다. 그 뒤 개호보험 제도 시작으로 2000년 1월에 NPO법인 자격을 취득하였다.</p> <p>2000년부터는 마을에서 「히다마리 살롱」 운영을 위탁받음으로서 많은 волон티어를 발굴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신뢰감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탁노소 개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로 사업을 확대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에 제한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 공생형 삶의 터, 주민참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따뜻한 터전을 계획하여 「키라리비도히메미야(姫宮)」를 개설하였다.</p>

3

민간주도 지역연계 돌봄활동

민간주도의 지역연계 돌봄활동은 자발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에 물적·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공통의 의제를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 유럽 대인서비스 관련 사회적기업

인구이동 및 가족이나 친족 또는 지역사회 등 전래적 의미의 안전망이 동요되는 세계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붕괴에 지역단위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산층 남성의 생계부양자 위치가 흔들리고 여성들의 노동현장진출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돌봄활동은 매우 시급한 의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주도 지역연계 돌봄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국면까지 고려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기업이 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각 국가마다 법적 형태가 다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실업과 사회적 소외라는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기업이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취약 계층을 노동 시장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가 도달한 한계에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부각되고 있다(OECD, 1999: 2-3). 사회적기업은 보통 비영리 단체가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반기업 즉, 사회적 목적 기업, 공동체 기반 사업, 공동체 재산 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노숙자, 취약계층에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제빵 사업을 진행해 온 루비콘 프로그램,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클락슨 센터 등이 대표적 예이다(OECD, 1999).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둘째 사회서비스 확충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과 공공서비스 혁신, 셋

째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윤리적 시장 확산은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및 착한 소비문화 조성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자선사업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무는,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기업이며 이를 빌게이츠는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기업의 형성 및 발전을 제3의 자본주의로 명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 영국에서 성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관심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EU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이윤 창출 보다는 “사회적”이라는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8 】 유럽의 대인서비스 관련 사회적기업 사례

사회적기업	사업 내용
오스트리아 Children's Groups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보육시설
프랑스 Crèches parentale (부모주도 보육조직)	부모들이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는 탁아시설. ACCEP라는 전국네트워크 형성
덴마크 Opholdssteder (사회적주거시설)	어려움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입주시설로 기존 시설의 대안모델로 구성됨. 교육훈련 및 치료가 강조됨
영국 Home Care Co-ops (재가도우미협동조합)	시간제로 부양부담이 있는 여성을 주로 고용
스웨덴 FKU	전국에 걸쳐 존재하는 지역협동조합개발기구로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자활 지원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A유형	보건, 훈련 또는 대인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포르투갈 CERCIs	장애아동의 재활 및 교육훈련을 위한 협동조합. 1985년에 전국연합조직 건설

* 자료 : Defourmy(2005)

【 2 】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

아시아 국가 중 사회적기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시킨 일본의 경우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출자하고 경영도 하는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가장 주요하게 개념화하고 있다. 워커즈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우며 모여 사는 지역사회를 돈이나 권력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출자하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유용하게 한다’는 취지 하에 설립되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생활클럽 안에서 여러 부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되고 이 그룹 내에서 이러저러한 워커즈가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지 설문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면서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작은 워커즈들이 형성되었다. 워커즈 초기에는 먹거리의 안전성에 주목하여 도시락, 빵집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미용 / 편집·기획 / 환경 / 재택복지 분야 등 점점 다양한 분야의 워커즈가 탄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00여 개의 워커즈에서 1만4천명이 일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90억 엔에 이르고 조합원의 대다수가 40세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 3 】 독일의 어머니센터(Mother Centers)

Mother Centers는 독일에서 일어난 자력 운동 조직이며, 최근 20년 동안 15개 국가에 전파되어 750개가 넘는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UN-Habitat로부터 ‘최고의 사례(Best Practice)’로 공인받았다. 센터에서 여성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공공장소에서 발표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과 연결하여 보육, 노인돌봄, 급식서비스, 중고가게, 장난감 가게 등과 같은 활동들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환경(family friendly environments)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켰다.

Mother Centers는 ‘공공의 거실(public living rooms)’이라고 불리는데, 교회 또는 공공건물을 빌리거나 무상으로 공간을 기부받기도 한다. 때로는 기업체 사옥의 일부를 기증받기도 한다. 이곳은 정보, 지역 문화, 지역에 대한 지식의 교환의 장(場)이다. 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는 소풍 등을 기획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인사를 초청하여 교육, 건강, 훈육, 아동발달 등에 대해 작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놀이그룹, 엄마의 밤, 부부의 밤, 와인파티, 독서토론회 등 작은 행사들을 개최한다. 아동병원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행사와 모임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와 함께 행사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센터는 서로를 익히고 지지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공 공간의 비공식성과 친근함으로 인하여 노인들도 기술이나

자원을 기부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공 생활에 통합된다. 지역 노인들로부터 육아 이야기, 요리 방법 등을 듣고 배울 수 있다. 가정과 지역공동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에게 센터는 세부적인 사항들로부터 시작하는 지역공동체 안의 시험적인 공간 만들기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의 재정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베품시장을 운영하기도 하며, 지역사회 기업이나 기관들의 기부를 받기도 한다. 운영은 센터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http://www.motherscenter.org>).

Chapter 4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에 참여

1. 보육 도우미 양성과 여성 일자리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3. 저소득층 가구 자립 지원

2010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지원 RESEARCH REPORT



보육 도우미 양성과 여성 일자리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은 실직여성을 보육도우미로 교육하여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기 어렵거나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영유아나 초등학생에게 무료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경제위기의 가속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층 및 빈곤 여성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대부분 식당서빙, 판매직, 대형마트 계산원 등의 저임 노동 집약적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 특히 자녀양육의 부담이 여성과 가족의 경제활동 또는 자립·자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배제된 여성에게 가족, 친구, 커뮤니티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박탈의 차원들을 축적시키게 된다(Silver, 1998).

그런 점에서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은 돌봄 노동을 통하여 실직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들의 돌봄 노동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자인 실직여성에게는 일 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를 가져오게 하고, 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에게는 보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지원효과 및 경제활동 참여 여건 개선이라는 효과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결과,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을 통해 돌봄의 전문성을 획득하여 자산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매개로 상호의존적인 돌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의 유대와 신뢰 또한 형성해가고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먼저, 돌봄 인력 선발 및 교육과정은 그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은 비가시적 배제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돌봄 인력은 실직여성으로서 일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진단서와 같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력과 경력에 의해 노동시장 접근이 차단당하는 현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과 의지, 그리고 50~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자격요건이라는 점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은 다음과 같다.

[표 4-1] 기본교육 프로그램 구성

광주	대구	인천	제천
	• 입학식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YWCA 기관 소개 및 인천 YWCA 역사/사업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간디공동체의 이상 • 농촌 덕산면과 간디 공동체의 활동
• 빈곤가정 및 아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교육 •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역사/보육정책현황과 과제	• 빈곤의 이해 • 돌봄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 가정보육사의 기본 업무 및 서비스 개요	• 본 사업의 목적 • 다문화사회의 이해 • 다문화가족의 이해 • 다문화(베트남)의 이해
• 저소득층 가정보육사 사업 의의와 보육사 역할	• 보육사의 역할과 자세	• 바람직한 가정방문 보육사 역할과 자세 • 가정방문 보육사의 역할과 기본업무 방문예절①, ②	• 바람직한 가정방문 보육사 역할과 자세
•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발달의 이해①, ② • 장애아동 일상생활 • 장애부모 정서 및 장애가족지원의 이해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이해 • 그림으로 보는 아동 발달 • 방과후 아동에 대한 이해 •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 영아기, 유아기 아동 발달의 원리 • 학령기 아동 발달 원리 • 학령기 아동의 이해와 돌봄의 기초	•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발달의 원리①, ②, ③
	• 신생아에 대한 이해 및 돌봄	• 신생아에 대한 이해 및 돌봄	
•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식단짜기	• 영유아 영양과 식사	• 아동의 식습관 지도 •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 아동의 식습관 지도,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 •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 방과후 아동에 대한 놀이 지도①, ②	• 영유아 놀이지도①, ② • 방과후 아동에 대한 놀이 지도 • 장애아동에 대한 놀이 지도		• 영, 유아기 교육방법: 동화구연①, ②
	•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①, ②
• 부모교육 • 마음이 통하는 아이들과의 대화법	• 부모와의 의사소통 • 아동과의 의사소통①, ②	• 부모상담기법 및 효과적인 대화법 •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사례	• 효과적인 대화법①
• 문제행동에 따른 이해와 교육 • 독서치료	•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①, ②	• 문제행동에 따른 이해와 대응 • 아동문제 행동과 육아지원 기술사례	

광주	대구	인천	제천
• 아동 성교육	• 아동성교육		• 사례관리 기초
• 마음 나누기①, ② • 인생곡선	• 자기성장 프로그램①, ②	• MBTI 성격유형검사 • MBTI 성격유형별 모듬활동	
• 가정보육사 역량 강화 - 일하는 여성 담당하라	• 스트레스, 갈등관리	• 직업인의 자세 - 일하는 여성의 당연한 도전	• 직업인의 자세 - 일하는 여성의 당연한 도전 • 프로그램 짜보기 실습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현장실습	• 개인실습		• 실습
• 가정보육사 활동 사례	• 선배들과의 대화	• 경험 나누기(토의)	• 선경험자(선배방문보육사) 대화
• 평가 및 발대식	• 평가 및 수료식	• 교육 소감 작성 및 설문지 작성 및 수료식	• 수료식

지역별로 편차를 가지고 있으나, 보육사의 아이 돌봄, 건강 돌봄, 정서 돌봄 등의 기본 활동에 대한 개념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 돌봄은 우유이유식 먹이기, 목욕과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잠재우기 등이며, 건강 돌봄은 질병 소독, 병원 또는 보건소 가기, 약 먹이기, 예방접종하기 이고, 정서 돌봄은 음악, 동화책 읽어주기, 연령별 놀이지도, 언어발달 지도 등이고, 이외에 아기용품 정리와 아기 옷 빨래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기본 교육에 기반을 두고 보육사는 매일 가정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아동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및 학습지도를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특징은 보육사들에게 포괄적 접근의 중요성과 그 실천 방법을 인식시키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전문가인 슈퍼바이저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보육 및 가족 지원의 어려움을 의논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례관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 보육을 제공하려는 취지에 맞게 보육사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임 또한 정례화하고 있다.

[표 4-2] 보육 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 광주 사례

구분	내용	횟수	
실무 교육	인성 교육	자존감 향상(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간관계, 부모교육훈련, 빈곤가정 특성 이해, 의사소통, MBTI 교육(1박 2일), 자기 성찰, 진단 프로그램, 집단상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	84시간 총1회
	기능 교육	영유아기 특성이해, 연령별 놀이지도, 아이들과의 대화법(연령에 따른 특성이해 및 대응), 방과 후 생활지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문제행동에 따른 이해와 대응,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영유아 영양에 대한 이해 및 조리법 등	
	현장 실습	• 교사들의 헌신성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설을 활용(예 : 방과 후 공부방, 보육노조 산하의 어린이집, 장애아동시설, 실습평가서 작성 및 평가서 마련) • 지역 보육 및 아동시설, 복지시설 현장방문 • 선배네 집 : 하루 투입해서 현장 실습, 영아 돌보는 과정(기저귀 갈기, 우유먹이기 등을 실습한다)	
보수교육	• 문제행동에 따른 이해와 대응,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처치 • 주제별로 심화교육(장애아 교육, 방과 후 교육), 역할극 •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 해결 사례	회당 2시간 총6회	
사례 관리	교육	개별 아동의 욕구분석, 아동의 참여와 자기결정 촉진을 기본사례관리인식을 통해 서비스 조정과 점검을 하여 통합적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등 구체적인 사례관리 교육 진행	회당 2시간 총2회
	사례 관리 워크숍	슈퍼바이저와 함께 하는 사례관리 워크숍 추진 - 현장에서 느끼는 보육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찾기 위해 사례관리보고서를 발표하고 슈퍼비전을 받아 통합적 보육서비스 제공하도록 함	회당 2시간 총9회
월례모임	보육활동을 나누며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보육시간의 조연과 지지 마련, 보육일지 점검 및 평가, 계획 수립, 보육사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냄	회당 2시간 총12회	
상담	보육사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진행 - 보육활동에서 갖는 보람,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지지, 지원 함	수시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 사례관리 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주로 복지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담당되어 온 과정이다. 그러나, 돌봄이 타인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동이라 할 때, 보육사를 ‘대리양육자’이자 동시에 ‘상담자’와 ‘교류자’로서의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양성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보육사 양성과정에서 사례관리와 상담자 및 교류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는 비중은 전체 실무교육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실직 여성이 자존감 향상과 자기 성찰에 기반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도록 하는 양성과정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례를 중심으로

[1]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는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대상자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모임, 동일 사업 관련 파트너십, 공식적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에의 참여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가능하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는 특히 개인이나 가족의 사례관리를 통해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장에서는 특히 ‘광주여성노동자회’가 시도하고 있는 통합적 돌봄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그간 필요시 지역자원인 아동인권 관련 기관(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기관), 가족상담기관(여성단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청소년상담기관, 아동문화·정서지원기관(시청자미디어센터, 미술치료기관, 마을도서관, 장남감교실 등), 의료지원기관(치과, 약국 등 병원), 일자리상담기관, 장애상담 및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성과가 있었다.

[표 4-3] 지역자원 사례 - 광주

기능	지역 자원
아동 및 가족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모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직업의식 교육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북구여성새일센터
여성노동 상담 및 법률자문	평등의 전화, 노무법인 '참터'
부모취업훈련 및 연계	서구지역자활센터
한부모 정보제공 및 교류	한부모여성네트워크, 광주여성노동자회
장애 상담 및 치료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아동돌봄지원센터
의료	정담치과, 한맥한의원, 상무약국, 미래병원
법률	천지법률상담소, 임선숙 변호사
문화지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사직도서관, 작은햇살도서관, 광주서구문화센터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광주시여성청소년정책관, 주민자치센터, CMB방송, 광주드림신문
운영방법	복지지도 리스트 확보 및 네트워크

일반적인 지역 복지자원은 우선 아동상담·보호서비스자원으로 장애아동상담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보호기관이 있고 아동교육서비스자원으로는 국공립도서관, 구별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수련관, 지역 내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족지원서비스기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있다. 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기관으로는 푸드뱅크(행복도시락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이 있다. 자원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저소득 가정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저소득가구 또한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가 약한 상태이다.

[2] 공동체 보육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① 동네거점 공동보육

지역의 저소득·소외(다문화, 수급자, 한부모, 조부모) 가정의 여성을 마을 공동체 보육 돌봄의 주체역량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네거점 공동보육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여성개인이나 가정 단위의 책임이 아닌 마을의 공동보육에 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보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역의 거점 보육공간인 '작은 도서관'

찾아가는 보육사, 마을 공동체 보육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 공간에서 마을 공동체 보육을 운영하는 것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거점보육을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는 25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여성노동자회가 서구 1곳과 북구 1곳 등 2곳을 거점보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가정보육사 2인이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에 배치되고 보육사들은 도서를 관리하는 한편,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은 수집하고 라벨 작업을 한 다음 대출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화, 수, 목요일에는 3개의 반을 만들어 아동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화요일에는 독서지도반을, 수요일에는 종이접기반을, 목요일에는 만들기반을 개설하여 보육사들이 지도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0세 미만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있다. 이곳은 방과 후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는 아이들의 ‘사랑방’, ‘휴식공간’,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현재 광주 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500여명이 된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3개 과목(총 3시간) 기준 월 2만원을 내며, 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한다. 수익금 통장을 개설하여 적립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모아 두고 있다.

광주시에 아직까지 아파트 지역에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나 운영할 주체가 없어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서를 비치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하거나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해서 이용자가 많지 않



다고 한다³.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보육사를 파견해서 운영해 주길 원하는 요구가 적지 않다. 광주 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서 ‘마을 공동체 보육사업’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수행 단체가 마을 도서관 활성화와 공동보육체 실현을 위한 아파트 자치회장과 맺은 협약서의 내용이다.

마을 도서관 활성화와 공동보육체 실현 협약서(안)

광주여성노동자회와 첨단호반아파트지회회는 “다솜 도서관”이 아동과 주민에게 책을 만나고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역이 함께 돌보는 마을공동 보육체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① 첨단호반아파트지회회는 아동과 주민이 “다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다.
- ② 광주여성노동자회는 “다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과 도서관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③ 첨단호반아파트지회회와 광주여성노동자회는 “다솜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공동문화공간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첨단호반아파트지회회와 광주여성노동자회는 “다솜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보육의 모델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010년 월 일
첨단호반아파트지회회장(서명)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서명)

동네거점 보육사업은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가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정서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여 도서대출, 책 문화, 독서토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의 나이별, 특성별 아동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또래 집단 간의 사회성도 기르고 창의성과 감수성을 높여내 미래세대의 희망을 그려낸다.

둘째, 지역의 공동 돌봄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하교 후 학원 또는 방치가 아닌 마을 동네 공간에서 함께 지내고 나누는 공동 돌봄을 통하여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이뤄내고 지역 내 공동 돌봄 인프라를 마련한다.

셋째,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공간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고, 부모교육, 시민교육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사랑방과 바자회, 마을축제 등 주민행사를 통해 더불어 살맛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넷째,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창출한다. 제도권교육과 자격증이 없는 여성들의 아이를 낳고 기른 경험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일로 개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한다⁴.

³ 광주여성노동자회 사업담당자와의 면접내용임(2011. 2.22)

⁴ 광주여성노동자회(2010). “워킹맘 지원 마을센터 제안서”, 내부자료

다섯째, 모자가정, 장애인 가정,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이 동네거점 보육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가 개최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여성주의 의식을 갖게 되면서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empowerment)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예를 들어 작은 도서관에서 보육사로 일하는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잘 되지 않아 학원 문을 닫아야 했다. 그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가 컸지만 완전히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적은 수입이지만 보육사의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짧은 편이어서 시간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면서 많은 즐거움과 큰 보람을 얻고 있다고 한다.⁵

② 가족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지원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을 촉진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방문보육사가 장애인 부모를 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보살피면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고 장애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단체 행사에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가정보육사가 장애인 부부와 두 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혀 대화가 없었고 장애아동인 6세 여자아이는 늘 우울한 표정이었다. 비장애인 아동조차 3살인데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기만 했다. 그런데 보육사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말하기가 자연스러워졌고 낯선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횟수도 늘어나면서 사회성이 좋아졌다. 놀라운 것은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아이들의 엄마가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소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빌려오고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관심을 갖더니 직접 참여해서 이웃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⁶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은 공통 과제를 가진 사람들 간의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 자녀와 함께하는 여름가족캠프, 송년회, 나눔 바자회 진행
- 이용가구 방문과 이용가구 만남의 날을 통해 가족문제대안과 가족지지망 구축
- 아동정서지원을 위한 미술놀이, 악기배우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홍보캠페인, 나눔바자회, 워크숍

등과 같이 부모와 가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부모·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이 반영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⁵ 광주시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보육사와의 면접내용임(2011. 2. 22)

⁶ 광주시 방문보육사와 사업주체 실무자와의 면접내용임(2011. 2. 22)

3

저소득층 가구 자립 지원

[1]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지원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더불어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타 비용’ 등과 같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 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대비 (기타)보육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소득 대비 보육료 부담의 증가는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취업 포기로 이어져 가구의 자립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2007년 광주 및 대구 여성노동자회 저소득층 보육실태조사 중, 가정보육도우미 파견 이전의 아동보육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맡길 곳이 없어 취업을 포기했다, 아이들끼리 지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가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에 관한 조사를 보면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시설이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높았다. 또 ‘늦게까지 운영하지 않아서’, ‘장애아보육시설이 없어서’, ‘불안해서’, ‘추가보육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 발농사 위주의 영농 특성상 여성의 일이 많으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은 밭일과 가사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 아동들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 특히 병설유치원과 교회부설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보육의 사각시간대이다.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대상 가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4인가구 약 1,956천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장애아가 있는 가구 등을 우선하였다.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영아보육서비스와 야간보육서비스가 있다. 전자는 영아를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육하는 것이고, 후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방과후에 부모 귀가시간에 맞추어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이와 더불어 가구의 위기 상황시 가사, 간병 추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경제활동과 육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표 4-4] 보육서비스 제공 기준 - 광주

구분	영아보육		야간보육		공동보육	
	무료형	저렴형	무료형	저렴형	무료형	저렴형
서비스 대상수	5가구 (7명)	5가구 (5명)	15가구 (13명)	10가구 (15명)	13가구 (20명)	12가구 (20명)
서비스 대상	0~24개월		0~10세(초등3학년까지)		0~10세(초등3학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	오전 8시~저녁 7시 하루 8~11시간		오후 2시 이후부터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오후 2시 이후부터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저소득층 보육서비스는 주로 저소득 소외계층(다문화, 조손, 수급자, 한부모)가정에 집중되어 있어 방문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보육·교육 결손을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의의가 있다.

재가보육도우미 파견 후 아동의 변화에 대하여 식습관, 건강, 성격 밝아짐, 성취향상 등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부모의 업무능력향상, 가족의 행복감 증대, 자녀와의 친밀감 증대, 소득 증대 순으로 가정과 부모에 미친 영향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 저소득층 가구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단위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는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자원들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꾀하였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과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사회 내 기관 간의 정보 교환과 의뢰, 지역자원의 개발 및 동원,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역할 분담 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 내 기관 간 협력이 강조되면서 지역 복지 서비스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의 필요성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례 관리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 사후관리가 안 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최소화하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표 4-5] 솔루션위원회 구성

구분	광주	대구	인천
구성	외부 유아교육과 교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행정복지학부 조교수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아동복지 보육학과 교수 여성가족정책연구소 병원원장 심리 전문가	아동복지학과 교수 지역자활센터장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여성문화센터장 종합복지관장
	내부 회장 사무국장 실업빈곤 팀장	회장 사업 담당	사무총장 사업 담당 간사

저소득층 수혜 가구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목표 하에 솔루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병아 및 장애아동의 진료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와 위기가정의 아동 심리, 정서적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연극 등 아동 프로그램 운영과 가사도우미, 간병사 파견 등으로 통합적 지원으로 위기가정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솔루션위원회는 월 1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으며, 보육사 파견현황 및 활동보고, 파견가구 아동 및 가구별 특성을 사업 담당자가 위원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교사들이 솔루션위원회 위원들의 개입이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 위원들이 보육가정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 위원회에 상정된 사례들은 주로 부자가정, 장애부모 및 아동가정, 모자가정이다.

부자가구 A

A가구는 아버지, 딸 1명 아들 2명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살피거나 집안일을 살피는데 거의 관심이 없다. 아버지는 엄마의 잦은 가출과 외도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며, 아이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고민을 말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하는 직업이기에 중학교 3학년인 남자조카에게 초등학교 6학년생인 딸을 보살피 달라며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사촌오빠가 수시로 성추행을 하며 사촌동생을 괴롭혀 왔다. 딸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무관심했고 더욱 불안해진 딸은 매일 찾아오는 가정보육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보육사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카를 아단치고 집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솔루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위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아버지를 면담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업담당자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고모의 노력으로 아이와 사촌오빠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아버지도 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권유했다. 즉, 아버지에게는 언제라도 또 다시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니,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사례는 **부자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아가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다가 급기야 성폭행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합적 보육서비스를 통해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부자가구 C

이 사례는 아버지와 2명의 아이가 있는 가구로, 작은 아이가 딸이며 지적 장애 3급을 판정받은 경우이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지적 장애아인 딸에게 학습지 교육을 시킬 정도로 자녀교육에 관심은 많으나 권위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하고 있어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 했다. 솔루션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은 미술놀이 치료였다. 미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되찾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미술놀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심리상담기관이나 전문 상담가와 사례가구를 연결시킴으로써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가구 및 아동을 선정하고 위기가정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솔루션위원회는 가정보육사들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위원회 운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되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그때 그때 개입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 표 4-6 】 서비스 연계 요구

구분		요구
발달지체 장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인 발달은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더 나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인지, 언어, 정서적인 면의 발달지체 전문적인 치료와 아이의 장애정도 발달에 맞는 교육 지원 필요 부모에 대한 장애아 전문 카운슬링
조부모 가정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행동 및 역량의 한계 학습 지도, 함께 놀이하기, 함께 목욕하기, 휴일 놀이공원 또는 야외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필요
한부모 가정 아동	부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의 자녀양육태도, 주변의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조사 등의 환경조사 필요 일상생활 영역 분야의 지원 필요(청결한 몸 가꾸기와 의복지원의 필요, 식습관 지도 및 건강관리 지도) 여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특별한 도움이 필요
	모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의 역할교육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부여에 대한 지원 열악한 경제력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여력지원(저렴한 직업훈련소 알선 및 정보제공)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다른 학부모와의 교류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우리말 익히기, 의사소통의 방법 모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가정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 -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 개선과 외국인 엄마의 취업활동 정보 제공에 대한 서비스 -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및 사회의 지원연결과 자원개발 필요

부자가정의 경우 아이들은 식사를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안에 아이들과 함께 밥짓고 국 끓이기, 반찬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했거나 특히 사별한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상담이 필요한데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면 처음에는 꺼리다가 아이들을 위한 상담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솔루션위원회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던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7 】 솔루션위원회 사례 - 인천

사례 대상자	가족현황	서비스제공	현황	솔루션개입방안	현재상황
조○○ (54세)	손녀 1명 (7세)	학습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아버지(70세), 할머니(54세) 가족수입 없고 전세 1,500만원 지하 빌라 거주. 건강보험료 6개월 밀려있는 상태 어린이집 종일반. 재료비와 간식비 6만원 중 3만원 후원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지원 서비스 연계 조부모의 기초생활 지원 신청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지속적인 학습 서비스 지원
백○○ (38세)	자녀 1명 (5세, 선천성 장애)	보육서비스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수급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였으나, 육아(장애인복지관 및 병원 재활 치료)로 경제활동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과 모의 밀착된 관계를 독립적으로 유지 보육서비스 시간동안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직장 및 시간제 일자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시간동안 경제활동 계획
육○○ (37세)	자녀 6명 (초등5, 초등2, 6살, 4살, 3살, 영아)	보육서비스 (1일 4시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입 (1일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무소에서 의뢰 모는 뇌병변 3급장애 및 출산 후 2개월, 부는 청각6급 장애 남편 급여 월150만원, 모 소유의 빌라, 전라도에 농가와 밭 정리정돈되지 않은 주거 상황 남편(부)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 초등생자녀와 고물줍기 부의 모에 대한 폭력 및 아동 학대 초등5학년 문제행동 6살, 4살, 3살 어린이 집 귀가 후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을 통해 밀반찬서비스 가정보육사 파견으로 6째 아동의 보육 서비스 위기가정개입으로 청소 및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입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시간 활용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의 경제적 의존 심리에 대한 대처 방안 모의 가정을 이끌어 갈 자립적인 의지 및 심리적 안정과 능력 향상 자녀들의 정서적, 건강 문제
김○○ (25세)	자녀 2명 (20개월 / 남, 임신중)	큰 아이 4~8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남편(46세) 자격증 공부. 아내(25세) 둘째 출산 임박 자립심 및 자녀를 잘 키우려는 의지 강함 남한 문화 서비스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후 돌봄에 대한 지원 대안마련 출산 용품 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물품 지원 방안 무료 산모도우미 2주 연계 위기가정 도우미 연계(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아동의 무료보육서비스는 1차 3개월 서비스는 종료상태이나 내담자가 필요를 요청

하지만, 이상의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가족·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접근 및 대상의 포괄성 이외에도 아동의 포괄적 영역에서의 발달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 외에도 보건, 영양 영역에서의 보상차원 서비스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Chapter 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모델 연구 목표

1. 비전과 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과제
4. 추진체계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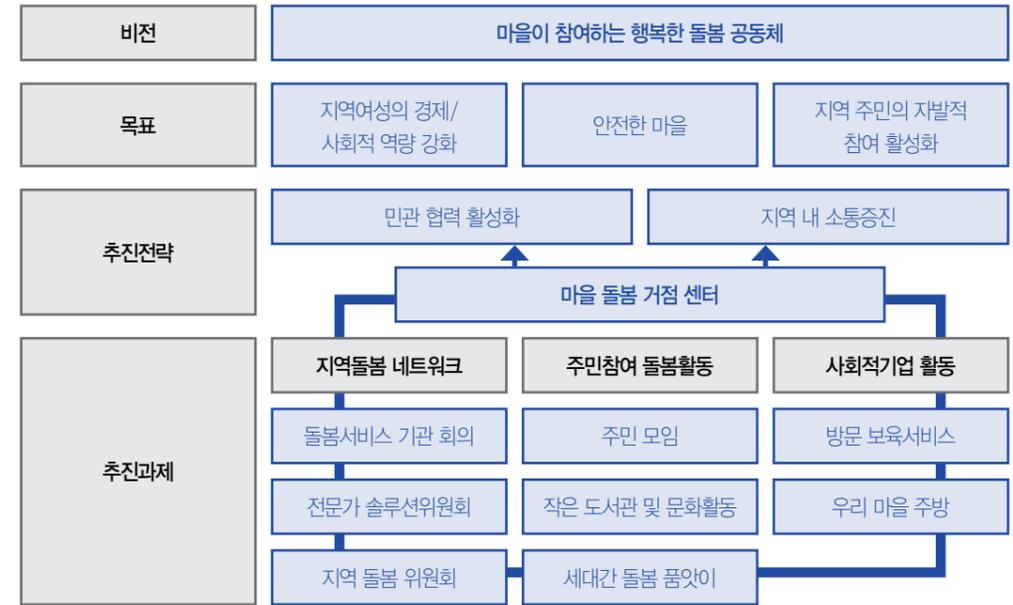
통합 돌봄서비스는 가구 단위로 요청되는 아동과 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가능한 보육과 돌봄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이나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성인들 모두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건강한 지역사회가 재생산된다는 관점 하에 발생하는 돌봄 요구는 보호, 교육, 이동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관계 유지 등을 통해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연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가 그러하듯이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가족기반 돌봄서비스가 지역기반 돌봄서비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지역 공동체 내부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이 축적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원활히 달성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과 부모의 상호지지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는 또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욕구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큰 구조 속에 위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에게는 발달상의 과업과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 개발, 조정 등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양육에 대한 욕구와 지속 능력을 넘어서 자아실현과 심리적·사회적 안정 및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욕구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경제·사회적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통합 돌봄서비스는 '마을 내 아동 돌봄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소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 공동체 조성 사업의 주된 수단이자, 장기적으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상호간에 돌봄을 시민적 활동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조성의 비전을 갖는 활동이다. '마을이 참여하는 행복한 돌봄 공동체'는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족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지와 지원 및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공생적 삶이 만들어지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생적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첫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둘째, 지역

[그림 5-1]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모델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지지와 지원에 기반을 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세 가지 사업목표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마을간다'라는 말에서 '마실간다'는 말이 유래한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마을은 단순한 지역을 뜻하는 동네와는 달리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즉 마을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관계 맺기, 그리고 연대가 중심에 놓여 있다. 공동체를 만드는 주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해서, 지역사회가 자생력 있는 공동체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의제를 개발하고 그 의제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하는 구심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일이 구성되고 운영될 때 지역 내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여성들이 소통·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는 장애아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가족 유지와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가족은 언제라도 돌봄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상품화된 돌봄 시장은 이들 가족의 돌봄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가족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구성원에게 자원이전의 효과가 가장 큰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빈곤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주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anxiety free)한 무장에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만들기를 의미한다. 즉 최소한의 안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안전한

삶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무장애 공간이란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활동, 건물, 교육, 집회, 취업, 교통, 투표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지역사회가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될 때, 모든 시민과 영유아, 아동,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장애도 없이 사회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목표가 달성될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나눔으로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돌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추진전략

‘마을이 참여하는 행복한 돌봄 공동체’조성을 위하여 빈곤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성에 입각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지역사회 내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민·관 협력을, 아니 더 나아가 민·관·기업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활동 전략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활동은 무엇보다도 ‘마을 돌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

마을 돌봄 거점 센터는 지역 내 부모들과 아이들의 다양한 돌봄 및 양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거점 센터(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쉽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일종의 지리적 장소이자 관계의 중심 공간으로서, 이러한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여성단체는 지역의 공동체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마을 돌봄 거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존감, 자기 확신, 지식이나 기술 확보 등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조직화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습 및 논의의 장 또한 제공해야 한다.

마을 돌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 내 공공과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력과 공동체 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내는 의사소통 증진 활동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돌봄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의 다양성과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한 조직에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성단체, 주민조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한데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상호간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민·관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 설치와 찾아가는 서비스, 정보제공·의뢰·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8대 영역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⁷ 전달체계가 각종 공공기관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지역과 밀착된 읍·면·동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체계 포괄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전

달체계를 보유하기 힘들다는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복지·고용 관련 민간 서비스 시설들은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기능별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돌봄 관련 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별·기능별로 분화된 서비스 시설운영은 일견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마을 돌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 협력은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관 사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 자원 간 연계를 시도함으로써 자원의 총량을 늘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민·관 협력의 관행이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기관 간 협력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민간 기관들은 개별기관 중심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 기관을 뛰어넘는 사고와 활동을 한 경험이 취약하다. 더불어 동일한 분야에 속해 있는 기관들 간에는 사업 영역 및 자원 배분 등을 둘러싸고 경쟁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 또한 적지 않고 영역이나 대상이 다를 경우 관심사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협력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민간기관 간 협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은 민간과 협력 없이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또한 있어 민·관 협력 역시 장시간의 노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민간기관들과 민과 관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공통의 시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공동사업은 지역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돌봄서비스와 고용에 개선점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의 중심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마을 돌봄 거점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과 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전문가 솔루션 위원회나 지역돌봄위원회 등에 지역과 관련 있는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관·기업의 협력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둘째, 돌봄이 사회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역주민들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이 개별적으로 돌봄을 해결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여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돌봄을 소재로 만나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상호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요청된다.

지역사회 내 의사소통 증진은 공동체가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며, '특정한 지역에 함께 거주하

7 2007년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 전달체계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8대 영역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32개 시·군·구 행정체계 개편은 모두 마쳤으나, 이 중 50여개 지역에서만 민·관 협의체의 토대가 되는 민간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고, 이들 협의체 중 민·관 협의체 기능을 하는 협의체는 10여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참조).

고 있는 주민들이 고립되고 개별화된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웃사이의 협력과 상호부조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관계의 재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빈도와 밀도이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공유하는 돌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마을 돌봄 거점 센터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3

추진과제

[1] 지역돌봄 네트워크

지역돌봄 네트워크는 지역 내 돌봄욕구 또는 지역 내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자원·기술·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 간에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조성된 관계망이다. 즉, 지역 내에서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이다. 돌봄 공동체는 지역사회라는 동일한 공간 내에서 자녀의 돌봄과 양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민과 조직들의 상호작용 활동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기관과 조직이 돌봄을 분담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관련 기관과 조직들의 상호 원조하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기관 회의, 전문가 솔루션위원회, 지역돌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첫째, 돌봄서비스 기관 회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보육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실무자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이한 분야, 상이한 기관에서 종사하는 실무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개별 서비스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들의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연대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전문가 솔루션위원회는 대상 가구의 욕구파악에 기초하여 개별아동 및 가족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목표 및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지역돌봄위원회는 가족생활과 일 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목적을 갖는다. 지역 돌봄 위원회에는 돌봄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체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사회단체, 종교기관,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기본적으로 돌봄에 관심을 갖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참여할 수 있다.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들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이한 견해나 관점에 대해 토론하며, 이로써 각자 지역사회 내 돌봄 나누기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 내지 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업과 관련 조직이 가족생활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 하부구조를 만들고, 출·퇴근이나 상점·병원 등의 영업시간, 관공서 업무와 관련한 시간 등을 조정함으로써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

[2] 주민참여 돌봄 활동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돌봄 공동체’는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가족이 겪는 생활의 문제와 요구를 마을 안에서 함께 해결하는 곳이다. 공동체는 마을과 가족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활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돌봄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드는 자발성이다.

첫째 주민모임은 조직화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양육과 돌봄의 환경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에 의해 더욱 고양될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주민들 간에 상호 이해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의 생활조건과 돌봄 관련 상태에 대해 알리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각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돌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혹은 특수한 상황들이 전개되는지 알아야 한다. 다른 주민들에 대한 이해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둘째, 문화 활동은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에 참여 하지 않는 주민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알림으로써 모임이 확대되는 역할을 한다. 자녀양육에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역 어른들과의 공동참여 문화프로그램, 의식전환을 위한 아버지교육 등의 프로그램,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지역을 결합시킬 수 있는 가족단위 가족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마을 축제 등 주민들의 소모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프로그램, 주민들의 소모임 활동과 어린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하모니카 교실 등), 학습 외 옥외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 지원, 특히 축구·농구와 같이 팀으로 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등 호기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셋째, 돌봄 품앗이 활동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아이들을 함께 어울리게 하기 위한 주민 공동 양육 품앗이 사업이다. 공동 양육 품앗이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는 우선 자녀와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놀고 사회화될 수 있는 놀이집단(playgroup)의 구성이다. 놀이 집단은 일주일에 1~2회 일정 시간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놀이하는 모임이다. 모임을 통하여 자녀에게 함께 놀아줄 친구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공유, 정서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의 상호교환 등을 통하여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놀이그룹에 참여하는 부모 중 1인이 그룹리더로서 역할을 맡고, 그룹리더로 활동하는 부모는 ‘부모자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전반의 운영지

원자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놀이 집단은 주민자치센터,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의 작은 도서관, 관리 사무실 등 지역사회공간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양육자들이 놀이 공유를 통한 육아 관련 정보와 도움 교환을 넘어서 돌봄 관련 품앗이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품앗이 모임은 5~6가구가 중심이 되어 아이를 돌보는 품을 나누는 것은 물론, 장보기, 야외 놀이 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 표 5-1 】 주민참여 돌봄활동 과제 내용

영역	내용
주민모임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조직화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하는 사업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조직, 동아리 활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의식 및 환경교육 등
작은 도서관 및 문화 활동	마을 단위의 행사 등을 공동 기획함으로써 마을 전반의 의식수준 및 공동체감 증진을 모색하는 사업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마을센터 운영 등 - 골목 축제 또는 마을 축제를 통한 공동체 복원 노력 - 이웃 관계를 살려내고, 사회적 약자의 공동체 내 역할 만들기 사업
세대간 돌봄 품앗이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들의 자생적 모임이자, 지역 내 노인, 1인 가구 등의 다양한 의존 요구를 상호부조를 통하여 해결하는 사업

[3]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활동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창출된 이익은 다시 지역공동체에 투자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를 꾀한다(www.socialenterprise.go.kr). 즉 지역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연대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이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지며 윤리적 시장의 확산 또한 가능해진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과 윤리적 시장 확산이라는 4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동체 내의 통합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의식주 등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보건사회 및 교육 서비스의 운영이나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각종 활동을 포함한다. 보건사회 및 교육 서비스의 경

우 지역사회센터, 가정 서비스나 노인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경제적·사회적 생산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주택 수선 및 유지, 녹지 공간이나 공원 관리, 공공주택 및 공교육기관 운영 등의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즉 지역사회의 일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조직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활동은 지역 주민의 최대 현안인 보육서비스이외에도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첫째, 방문 보육서비스 둘째, 우리 마을 주방 등의 사업에 제한시켜 논의한다.

첫째, 방문 보육서비스는 시설 중심의 보육 지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가정 방문 보육서비스 이용의 실태를 보면 영아의 경우 단독 이용율이 높지만 유아는 타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되고 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2009)에 따르면 영아의 21.6%는 단독 이용이고 3.4%는 기관과의 병행 이용이며, 반대로 유아는 3.3%가 단독이용이고 17.6%는 기관과의 병행 이용이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자의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양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정의 자원과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 시설 보육 이외의 대체적인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임시·일용직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영아 보육 및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이며, 아이의 질병 등으로 시설 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마을 주방은 반찬을 만들어 파는 주방과 방과 후 아동 및 청소년과 노인 등 지역 주민에 식사를 제공하는 집 식당을 갖춘 지역공동체 서비스 사업장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협동해서 만든 반찬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맞벌이가족이나 독신가족, 노인가족, 병자가 있는 가족 등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체이다. 동네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근거리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작업장 설치나 판매처 소개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업이 지원한다. 이와 같은 우리 마을 주방은 도농 간 교류사업으로도 발전하여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각종 장아찌 등 보관이 용이한 반찬들을 시골마을과 결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

4

추진체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가족중심의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을 위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이 속한 가족전체의 기능향상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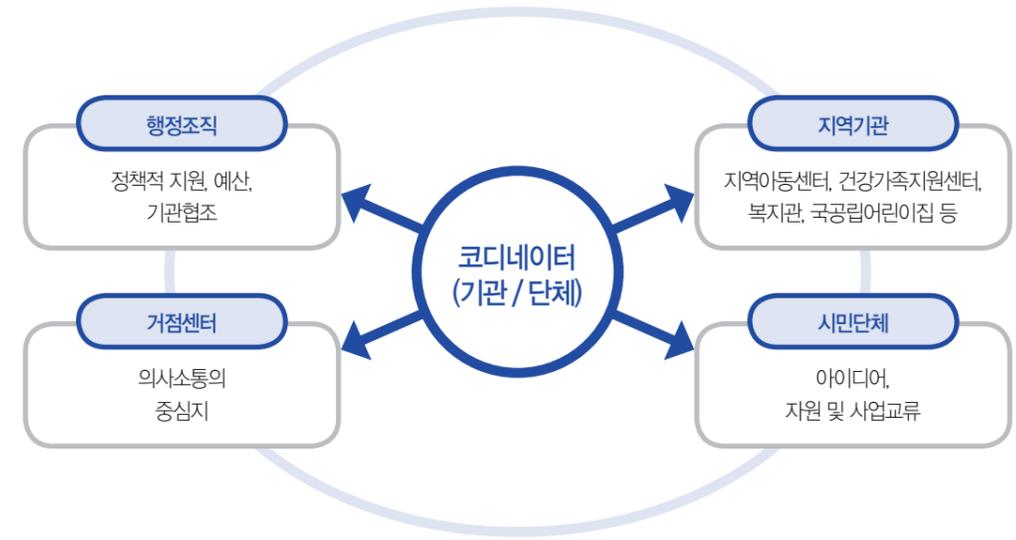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역사회라는 동일한 공간 내에서 자녀의 돌봄과 양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민과 조직들의 상호작용 활동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관련 기관과 조직들의 상호 원조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서 네트워킹은 공유된 목적을 성취하고 (사회적 변화)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조직 및 기관들이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자원을 모으고 서로 간의 영역을 조정·합의하며, 참여 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와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이 구조 내에 포함되는 지역기관은 노인서비스 제공 기관·단체(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노인 요양원, 노인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시니어클럽 등), 장애인 서비스 기관·단체(시각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여성 서비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가족치료센터 등), 아동·청소년 서비스 분야(청소년 문화의 집,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청소년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보육정보 센터 등), 중장년 실업·자활 서비스 분야(실업자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 이주노동자센터 등)이다. 이 밖에 문화, 보건, 고용, 생활체육,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

네트워킹에서 여성단체는 '탈중심형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지역의 여성조직' 활동을 도모한다. 여성조직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조직은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돌봄을 소재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와 장을 만든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관계와 자원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 여성조직이 직접 통제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들이 돌봄 관계 구축과 공동체 조성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성조직은 돌봄 중계소와 같은 코디

[그림 5-2] 지역사회 돌봄에서 여성단체 역할



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각각의 일터와 삶터에서 돌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코디네이터(단체)는 가족과 지역사회조직(보육시설 및 학교 등), 행정조직,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연계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가족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돌봄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가족을 둘러싼 양육관련 서비스 기관이나 행정체계 외의 모든 환경은 주민과 지역의 밀접한 관계 형성 및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코디네이터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필요한 공간, 프로그램, 보육의 욕구와 관련된 서비스가 마련될 때 역할 수행은 더 효과적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도 있으나 대체로 그럴 경우에도 사업의 관점은 사업을 여성조직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 소유하고 배분하는 방식을 벗어나 각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과 적절히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조직은 지역 안의 다양한 사람들 및 단체들과 관계하면서 사회적 의존자들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 강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계한다. 즉 여성조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풍부히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가 특별한 제도나 서비스 없이도 사회적 의존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탄력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한다.

Chapter 6

보육서비스 저소득층 가구 사업 발전 방안

1.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성
2. 주민참여 돌봄활동 조직
3.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기관과 조직이 돌봄을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지원하는 돌봄 문화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돌봄 관련 기관과 조직들이 상호 윈조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기관 회의, 전문가 솔루션위원회, 지역돌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 수혜 가구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목표 하에 솔루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역 돌봄 네트워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돌봄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포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형태의 돌봄 관련 문제들은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 하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시간 보육은 가장 기본적인 돌봄서비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취침 전까지 아이들이 방치되는 시간에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혼자 있는 아동들이 빈번히 겪게 되는 불규칙한 저녁식사의 해결책, 놀이에 대한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등도 돌봄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는 방과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달 또한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민 간 아이 돌봄 품앗이 기회 제공이나 지역 환경 개선(공원, 도서관, 놀이터 등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등) 또한 지역 내 돌봄 관계 활성화에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기관과 조직,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활동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사업주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함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공통의 관심사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역사회 전체에 의식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간 사례관리를 통하여 개입해왔던 위기 가정의 현실과 솔루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긍정적인 변화를 동시에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솔루션 회의에 주로 전문가 개인이 참여해왔던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나 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기관 간 파트너십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 지역관리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지역단위 기관들 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 증진과 지속가능성을 돌봄 생태체계라는 보다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 돌봄활동 조직

각각의 가족이 겪는 생활의 문제와 요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해결한다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본 연구가 참여 관찰한 4개의 민간주도 돌봄 활동 사례들은 아동 양육의 문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꼭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서 주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따라서 지역사회 전반의 소통 구조 마련을 위한 좋은 의제 및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주민 자생적 공동체 형성의 경험이 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을 하는 여성단체가 지역 주민의 잠재된 요구를 일깨우는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은 지역 주민의 광범위한 활동 참여보다는 저소득층 개별 가구의 돌봄 요구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 수혜 대상 가구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자신감 부족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류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돌봄서비스 수혜 대상 가구 간 교류를 만들어낸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는 주민들 전체의 상호 교류와 돌봄 활동 참여로까지 성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가구에 좀 더 포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효율적인 지역사회의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현재 수혜 가구 중심의 교류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광범위한 돌봄 활동교류로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요구조사, 지역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단위 활동과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적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활동은 때로는 지역 어린이도서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문화 활동을 함께 만드는 것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함께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국립 어린이 집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모임 공간을 만들고 상호 간에 생활과 직업, 취향, 돌봄 수행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돌봄 시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대화 모임들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현존하는 돌봄 관련 기관과 시설의 수와 위치,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운영 여건 및 미흡한 부분 등에 관하여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돌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매개를 통해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공동체적 유대와 연대의 형태로 발전되고 그 결과 효과적인 이웃 망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부재와 자발적 돌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확대된다면, 육아 품앗이나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다.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주민 주도적 의사결정체의 구성에 대한 요구나 지역 내 돌봄 거점(학교, 교회, 공부방을 활용해서 쉽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확보에 대한 요구가 출현한다면,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에서 진행해 온 저소득층 돌봄서비스 수혜 가구 간 모임과 연계한 주민 돌봄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로서의 생태적 지역공동체의 구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돌봄서비스는 돌봄을 사적 영역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사소한 일로 간주해 온 근대적 돌봄 노동 관점이 가져온 돌봄의 위기를 돌봄의 윤리 토대 위에서 공동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또한 돌봄의 상업화가 가져오는 계층간 불평등 재생산 및 돌봄 위기의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통합 돌봄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돌봄서비스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서 돌봄노동 자체에 공적 가치를 부여한다. 돌봄 위기에 대한 지역의 공동체적 대응,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공적 가치 부여, 지역사회 내 민·관·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유기적 연결망 구축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합 돌봄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적기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윤리적 시장 확산은 4개의 주요 중심 역할이라고 할 때, 통합 돌봄서비스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할들을 저소득층 보육 지원 및 가족지원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를 공공성 영역의 확대라는 정치적 의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은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이며 이때 비용은 정서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돌봄을 사회적기업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평등한 삶의 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은 아동과 부모에게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반면, 현행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이 저소득층 돌봄 요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서비스의 지속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보육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이기는 하지만 바우처 이용처가 어린이 집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인 서비스의 사회서비스화는 다소 불투명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대상 또는 서비스 영역을 변경하거

나 사업의 형태나 내용을 고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과의 융합 등으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 YWCA의 경우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의 사회적기업화 가능성을 두고 솔루션 회의를 진행한 결과⁸ 현재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상향조정될 경우 서비스를 포기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2차 돌봄 대상자인 복지사와 보육사의 능력과 자격의 보증 및 합당한 인건비 보장 등이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거점형 교육과 방문형 교육의 차이 및 대상층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1차 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저소득층가정의 보육서비스와 2차 돌봄서비스 대상자인 돌봄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사회적기업으로 진행되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상별 가격조절과 후원자와의 연결 등을 통한 부담금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원하는 고소득층 가정과 믿을 만 한 보육사를 연결시켜 비교적 높은 이윤을 남긴 뒤 이것을 저소득층가정 보육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의 사회적기업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돌봄서비스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책임과 의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돌봄서비스 사업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지원(Support), 기회(Opportunity), 지원망(Networks)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공식적·비공식적 돌봄을 연결하고, 소득과 자산 획득 수단을 연계하며, 공통으로 문제해결의 과제를 지닌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이러한 다각도의 연계를 통해 상호 단절된 전문적 서비스를 넘어선 합작(collaboration)이 가능해지고 이로써 돌봄 문제에 민감한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체계가 창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들 뿐만 아니라(작은 약국이나 병원, 동네 슈퍼 등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사업체 등) 기업들이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것의 실천을 위해 각자의 몫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사회적기업화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수립을 위해 필연적인만큼 연결망의 코디네이터로서 기능하는 여성단체는 이러한 연합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⁸ 이것은 2011. 3. 14에 인천 YWCA에서 진행된 솔루션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부록 Appendix

저소득층 가구 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매뉴얼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사업은 통합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바, 가정 보육사 파견사업 내용으로 개별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언어발달 지원과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사정(assessment)과 지원(support),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그 핵심 사업으로 한다.

본 매뉴얼은 개별 사업 수행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가정 보육사 파견

[1] 사업 목표

-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사 파견은 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요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삶의 여건을 충족시키게 함
- 지역 내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 사업을 촉진시켜, 경제적 독립성과 직업적 자부심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향상 시킴

[2] 사업 내용

가정 보육사 선발

- 가정보육사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는 물론, 보육교사의 자격은 없으나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가정보육도우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20~40시간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가정보육사로서 적합한 연령은 30~40대이지만 50~60대의 중고령 여성도 심신의 건강을 증빙하면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에 가정보육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중고령자 보육도우미는 반일제 이하의 시간제 근무를 권장

교육

- 교육은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함
- 기본 교육내용은 영아발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위생과 질병관리, 식생활 관리 등 일반적인 보육교사 교육에 준하며, 사업의 특성상 지역사회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함

구분	보육기초	보육실무	지역사회보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 • 영유아보육과정 • 영유아 관찰 및 연구 • 방과후 아동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및 율동 • 동화 및 언어생활 • 조형생활(미술 및 공작) • 수 및 과학생활 • 신체활동지도 • 영유아 영양 및 식생활관리 • 영유아 건강관리 및 교육 • 영유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놀이지도 • 생활지도 • 보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여성 또는 여성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여성, 양성평등문제 • 보육교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상호작용, 교사간 상호작용, "돌봄노동"의 의미 • 지역사회복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협력, 지역사회 참여의식 강화 • 부모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부모참여, 부모상담, 부모와 협력 등
시간	40시간	60시간	20시간

- 보수 교육내용은 통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특수한 돌봄 요구를 가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정보 및 보육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보육사가 없는 일상에 적응하며, 보육사를 대신할 만한 보육서비스를 찾을 것인지에 관한 대책 등에 대한 실무적 교육 제공

구분	부모관계	통합돌봄서비스	특수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에 관한 지식 및 양육 태도와 같은 실제적 정보와 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교육 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육아 및 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에게 보육지원 서비스가 끝나감을 인지시키는 적응교육 • 영유아문제 및 행동지도 • 가족의 특수한 요구 분석
시간	5시간	10시간	12시간

보육서비스 대상 아동

- 보육서비스 대상 아동은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매년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보육서비스 관리

■ 보육사 직무

방문 서비스	보호	아동에 대한 심신의 세심한 보호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하여야 함
	교육	아동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킬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
	영양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건강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
	안전	아동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함 보조자 또는 의사결정자로의 양육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지역사회교류	지역사회 주민의 양육활동 참여 및 관련 기관을 통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보육사 회의	가구의 긴급지원 필요여부 토론	
사례관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별특성 사례관리 워크샵	

■ 보육사와 협의를 거친 융통성 있는 시간의 운영

■ 보육 활동 구성

- 영아 교사는 '돌보는 사람'임. 영아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적 돌봄 속에서 탐색과 놀이를 하며 나날이 발달해 가기 때문에, 바람직한 돌봄 속에서만 교육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아들과 보내는 일과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영아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함.
- 보육활동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일상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 탐구, 예술경험 영역 등을 균형있게 설정하고,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이나 기술·태도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보육활동은 영아들에게 있어 탐색과 발견의 기회가 되어야 함. 영아들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이미 경험한 것을 확인하며 반복하다가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려 함. 한 가지 놀잇감이나 활동에 오래 집중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것을 탐색하려 하므로 교사는 지속적으로 영아를 따라다니며 안전과 자극의 역할을 해야 함.
- 놀이에 관심 보이기,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기, 자료 및 아이디어 제공하기, 놀이에 참여하기, 흥미 유도하기 등을 통해서 영아들의 놀이를 지도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함.

• 0세 보육

맞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를 맞이할 때는 반갑고 밝은 표정 • 짧은 시간이라도 영아의 보호자로부터 그 전날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영아의 건강 상태, 기분, 수면과 수유(식사) 등에 대해 정보 교환
수유 및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고, 음식 선호를 넓혀갈 기회가 되도록 상호작용 • 수유할 때는 젖을 먹이듯이 영아를 안아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눈을 맞추면서 언어적 상호작용 • 수유를 마치면 영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트림 • 수유 및 식사 후에는 먹은 양, 시간, 등을 보육일지에 기록 • 식사 후 손과 얼굴을 씻기고 영아용 칫솔로 이를 닦아 줌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는 쉬게 되고 기억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낮잠은 영아의 기억력 강화시키는 작용 • 커튼을 내리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 그림책 등을 준비하여 편안하게 읽어주고, 잘 자라는 인사
기저귀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갈 때는 영아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 주는 활동 권장 • 기저귀를 가는 동안 영아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해 주고 노래를 불러주면 기저귀 갈기가 놀이처럼 즐거운 경험이 됨 • 영아의 배변상태를 보고 건강 상태를 점검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놀잇감이 영아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 신체 및 움직임, 의사소통 및 사회관계, 탐색 및 표현 등 다양한 활동 유도
실외 놀이와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과 바람, 흙이 있는 실외는 좋은 놀이 장소 • 전신 활용하는 대근육 활동(오르기, 걷기, 뛰기 등), 물·모래놀이, 동·식물 관찰하고 기르기 등 다양한 경험 필요 • 동화 듣기, 간식 먹기 등의 정적인 활동도 실외놀이에서 경험 가능

• 1세·2세 보육

맞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를 맞이할 때는 반갑고 밝은 표정 짧은 시간이라도 영아의 보호자로부터 그 전날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영아의 건강 상태, 기분, 수면과 수유(식사) 등에 대해 정보 교환
간식 또는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고, 음식 선호를 넓혀갈 기회가 되도록 상호작용 영아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선택하여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강조 음식의 선호 넓히기, 음식물을 소중히 하기, 음식과 관계되는 위생습관 형성하기, 식사예절 형성하기 등이 포함된 식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을 골고루 먹기, 새로운 음식 먹어 보기,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밥과 반찬 골고루 먹기, 꼭꼭 씹어 먹기 등을 실천하도록 도움 기본 좋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어 안정된 분위기 양치도구를 준비하고 양치 지도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는 쉬게 되고 기억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낮잠은 영아의 기억력 강화시키는 작용 커튼을 내리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림책 등을 준비하여 편안하게 읽어주고, 잘 자라는 인사
기저귀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귀 갈 때는 영아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 주는 활동 권장 기저귀를 가는 동안 영아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해 주고 노래를 불러주면 기저귀 갈기가 놀이처럼 즐거운 경험이 됨 영아의 배변상태를 보고 건강 상태를 점검 대소변 가리기를 해야 하는 영아들은 변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변기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에 앉아 보듯이 변기에 앉아보기, 처음에는 옷을 입은 채로 앉았다가 옷을 벗고 앉아 보기, 인형을 변기에 앉혀 보기, 옷을 벗어 아래로 내리기, 변기에 앉기, 용변 보기, 일어나기, 옷 입기, 물 내리기 등의 순서를 재현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오래 걸리며 대개 훈련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근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놀이감이 영아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신체 및 움직임, 의사소통 및 사회관계, 탐색 및 표현 등 다양한 활동 유도
실외 놀이와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볕과 바람, 흙이 있는 실외는 좋은 놀이 장소 전신 활용하는 대근육 활동(오르기, 걷기, 뛰기 등), 물·모래놀이, 동·식물 관찰하고 기르기 등 다양한 경험 필요 동화 듣기, 간식 먹기 등의 정적인 활동도 실외놀이에서 경험 가능
헤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스킨십과 인사로 친밀감 유지

• 영아보육 기록표

구분	년 월 일		
	아동상태	기분	좋음, 보통, 나쁨 (이유:)
건강		좋음, 보통, 나쁨 (이유:)	
체온		열이 (있음: °C, 없음)	
식사	간식	식욕	있음, 보통, 없음
	점심 / 저녁		있음, 보통, 없음
	안했음	했음	(딱딱함, 보통, 설사)
수면	부터 까지		
투약	투약시간:	약 용량:	증상:
전달사항			

• 3세 보육

맞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를 맞이할 때는 반갑고 밝은 표정 • 짧은 시간이라도 보호자로부터 그 전날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유아의 건강 상태, 기분, 수면과 식사 등에 대해 정보 교환
간식 또는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다양한 식품의 종류와 이름에 관심을 갖도록 함 • 유아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선택하고 골고루 먹으며 적당량을 먹어야 한다는 점을 실행해 보도록 함 • 유아가 바른 식습관을 익히도록 함. 즉, 음식의 선호, 음식물을 소중히 하기, 음식과 관계되는 위생 습관 형성, 식사예절 형성 등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골고루 먹기,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기, 식사 전·후에 손 씻기, 꼭꼭 씹어 먹기, 식사 주변을 깨끗이 하기,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 바르게 앉아서 먹기, 적절한 양만큼 천천히 먹기, 음식 먹은 후에 치우는 것 돕기, 음식 먹은 후 양치질하기 등을 유아가 스스로 실천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와줌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튼을 내리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 그림책 등을 준비하여 편안하게 읽어주고, 잘 자라는 인사 • 잠들기 전에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을 묻고 유아의 경험을 즐겁게 들어줌
화장실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에게 변기를 잘 사용하고 배변 후 물 내리는 것과 휴지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 화장실이나 의복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을 천천히 습득하도록 도와줌 • 배변 후 꼭 손을 깨끗이 닦도록 지도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을 이리저리 옮기는 단계를 지나 수평으로 늘어놓거나 수직으로 쌓으면서 구성물을 만들기 시작하고 블록의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 • 역할놀이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 소근육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위사용이나 색종이 접기 등 모든 것이 미숙하여 여러 번 반복해야 함 • 그림책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시기 • 음악이나 리듬, 몸 움직임 즐기는 시기 • 1~10까지 셀 수 있는 구체물(예 : 작은 동물 모형, 조개류, 솔방울 등), 크기가 차례로 커지거나 작아져서 서로 순서를 정해 비교할 수 있는 놀잇감(예 : 크기가 점차 커지는 10개의 컵 쌓기) 등을 활용한 숫자 놀이
실외 놀이와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과 바람, 흙이 있는 실외는 좋은 놀이 장소 • 전신 활용하는 대근육 활동(오르기, 걷기, 뛰기 등), 물·모래놀이, 동·식물 관찰하고 기르기 등 다양한 경험 필요 • 동화 듣기, 간식 먹기 등의 정적인 활동도 실외놀이에서 경험 가능
헤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스킨십과 인사로 친밀감 유지

• 4세 보육

맞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를 맞이할 때는 반갑고 밝은 표정 • 짧은 시간이라도 보호자로부터 그 전날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유아의 건강 상태, 기분, 수면과 식사 등에 대해 정보 교환
간식 또는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식을 하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도록 지도 • 양치 도구를 준비하고 양치를 지도 •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이 먹은 그릇을 스스로 정리 할 수 있도록 지도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튼을 내리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 그림책 등을 준비하여 편안하게 읽어주고, 잘 자라는 인사 • 잠들기 전에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을 묻고 유아의 경험을 즐겁게 들어줌
화장실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에게 변기를 잘 사용하고 배변 후 물 내리는 것과 휴지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 화장실이나 의복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을 천천히 습득하도록 도와줌 • 배변 후 꼭 손을 깨끗이 닦도록 지도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블록을 쌓고 넘어뜨리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 • 색종이, 가위 등의 사용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음 •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기 • 다양한 소리가 나는 악기를 즐기는 시기 • 이야기 꾸미기 등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쓰기 등이 가능함
실외 놀이와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과 바람, 흙이 있는 실외는 좋은 놀이 장소 • 전신 활용하는 대근육 활동(오르기, 걷기, 뛰기 등), 물·모래놀이, 동·식물 관찰하고 기르기 등 다양한 경험 필요 • 동화 듣기, 간식 먹기 등의 정적인 활동도 실외놀이에서 경험 가능
헤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스킨십과 인사로 친밀감 유지

• 5세 보육

맞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를 맞이할 때는 반갑고 밝은 표정 • 짧은 시간이라도 보호자로부터 그 전날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유아의 건강 상태, 기분, 수면과 식사 등에 대해 정보 교환
간식 또는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식을 하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도록 지도 • 양치 도구를 준비하고 양치를 지도 •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이 먹은 그릇을 스스로 정리 할 수 있도록 지도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튼을 내리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 편안하게 쉬 수 있는 환경 조성 • 그림책 등을 준비하여 편안하게 읽어주고, 잘 자라는 인사 • 잠들기 전에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을 묻고 유아의 경험을 즐겁게 들어줌
화장실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에게 변기를 잘 사용하고 배변 후 물 내리는 것과 휴지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 화장실이나 의복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을 천천히 습득하도록 도와줌 • 배변 후 꼭 손을 깨끗이 닦도록 지도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 말하기, 읽고 쓰는 활동이 모두 가능한 시기 • 가족이나 성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관련 역할 놀이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게 놀이, 병원 놀이, 우체국 놀이, 미장원 놀이 등등 • 다양한 도구(폐품, 천 조각, 나무젓가락)를 활용한 정교한 조형물 만들기가 가능 • 리듬뿐만 아니라 멜로디의 탐색도 가능 • 보드 게임이나 카드 게임도 가능 • 경험한 내용을 다양한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음(동물원, 기차 만들기 등)
실외 놀이와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과 바람, 흙이 있는 실외는 좋은 놀이 장소 • 전신 활용하는 대근육 활동(오르기, 걷기, 뛰기 등), 물·모래놀이, 동·식물 관찰하고 기르기 등 다양한 경험 필요 • 동화 듣기, 간식 먹기 등의 정적인 활동도 실외놀이에서 경험 가능
헤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스킨십과 인사로 친밀감 유지

2 사례관리

[1] 사업 목표

-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빈곤, 가족결손, 비행, 장애, 노화, 학대, 폭력 및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에 노출된 사람”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함

[2] 사업 내용

가정환경 사정

- 보육사 조사

[표] 보육사 자기기입식 사례 발굴 질문

		내용
	아동발달	구도할 때까지 음식섭취, 음식물 숨겨두기, 음식을 잘 먹지못함, 거짓말, 위축 불안행동, 슬퍼하거나 우울해함, 5세 이상인데 소변 또는 대변 못가림, 머리를 벽 등에 부딪힘, 8세 이상인데 독립적 활동에서 현저한 지연보임, 활동 놀이에 주의집중 어려움, 지적장애 의심
안전	가족 내 안전 유지	가족원으로부터 혹은 가족원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 중 가족원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 방임되어져 있는 구성원(아동, 노인 등)이 있습니까?
	가족 중 가족원에 의해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가족 중 신체적 장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사와 아르바이트 등의 일로 인해 과로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이 있다.(심장병, 소아당뇨, 소아암, 간질, 아토피, 천식)
		병원 등에서 진단받았거나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가 있다. (선천성 기형 : 뇌성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기타()) - 성장장애나 왜소증 : 염색체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등

		내용	
건강	정신적 건강유지	외상 경험이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가족 중 불안, 초조함, 무기력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 상습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관계	관계형성	자녀와의 갈등이 많은 편입니까?	
		가족구성원간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족 돌봄	자녀 양육에 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큼니까?	
		가족 중 만성(심각한) 질환자가 있고, 그를 돌보는 부담이 큼니까?	
		보육·간병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회 관계	사회생활	자녀가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친구 또는 이성문제로 방황을 합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 중 상습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	기초생활	쌀, 반찬 등 식생활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여 하루 3끼를 먹지 못합니까?	
		주 3회 이상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다.	
		사계절을 대비하여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통자가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이거나, 일용직 일(식당일, 가사도움일, 막노동 등)도 없어 가구에 수입이 거의 없다.	
		공과금을 체납 중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합니까?	
		냉난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유선·무선 통신비가 부족하여 통신시설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꺼립니까?			
교육	기초지식	신체허약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기초적 학습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교육개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까?	
		학습 수행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생활 환경	주거환경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시설(화장실, 부엌 등)이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도배 및 장판 등에 문제가 있습니까?	
		냉·난방시설이 부족합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택 내 이동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거주지 주변에 폭행을 비롯한 기타 범법행위가 잦다	

■ 보육사 회의

-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표] 보육사 회의시 사례관리대상자 수준판정

구분	내용
단순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의뢰 대상자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문제해결이 충분한 경우 •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정보제공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솔루션위원회 전문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특례지원 가구 또는 비수급 저소득가구 중 경제·안전·건강·직업 영역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 가구 등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 • 의식주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 폭력(아동학대, 성폭력, 자살 등) 발생 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 갑작스러운 사고(사망 등)로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우 • 아동 혹은 가족을 위해 의료적 진단과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 • 아동 혹은 가족이 심각한 의료적 문제, 물질중독문제(알코올, 마약중독 등), 행태 중독문제(오락, 게임, 도박중독 등), 정신질환문제(정신분열병, 우울증 등)가 있으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원이 가족폭력(성학대를 포함하여 방임, 학대 등)에 연루되어 있거나 학대가 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가족원의 안전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진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솔루션위원회 사례회의 의뢰

부모상담

■ 욕구조사

- 사례관리 대상 개인 또는 가구의 강점과 사회적 지지자원 파악 및 욕구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가족력·개인력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며, '욕구조사표'에 작성된 조사 결과를 사례관리 회의 등에 활용함

[표] 욕구 영역별 주요 현상 및 원인 판정표

욕구 영역		현상	원인
안전	가족 내 안전 유지	㉠ 폭력, ㉡ 성폭력, ㉢ 유기, ㉣ 방임, ㉤ 학대, ㉥ 실종	① 정신질환, ② 습관성 음주, ③ 약물 오남용, ④ 폭력적 성향, ⑤ 왜곡된 성의식, ⑥ 치매, ⑦ 무기력감, ⑧ 성격차이, ⑨ 무관심, ⑩ 보호 역할 가구원 부재, ⑪ 가족 내 차별, ⑫ 가족 간 갈등, ⑬ 가정해체, ⑭ 경제적 빈곤, ⑮ 시간 부족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 신체장애, ㉡ 입시적 질병 및 상해, ㉢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 비만, ㉤ 영양결핍	① 유전적원인, ② 사고, ③ 자해, ④ 방임, ⑤ 유기, ⑥ 학대, ⑦ 고(저)혈압, ⑧ 당뇨, ⑨ 관절염, ⑩ 암, ⑪ 천식, ⑫ 결핵, ⑬ 전염병, ⑭ 만성간질환, ⑮ 간질(발작), ⑯ 치매, ⑰ 뇌졸중(중풍)
	정신적 건강유지	㉠ 정신질환, ㉡ 약물 오남용, ㉢ 습관성 음주, ㉣ 자해(자살)행위, ㉤ 불안감, ㉥ 폭력적 성향, ㉦ 대인기피	① 습관성 음주, ② 약물 오남용, ③ 스트레스, ④ 정신분열증·우울증, ⑤ 기타 정신질환 의심, ⑥ 가족부양 부담, ⑦ 이성문제, ⑧ 경제적 빈곤, ⑨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미흡, ⑩ 적절한 치료부재
가족 관계	관계형성	㉠ 부부갈등, ㉡ 부(모)자 갈등, ㉢ 가족의 무관심, ㉣ 기타갈등	① 실업, ② 폭력, ③ 탈선 및 가출, ④ 성격차이, ⑤ 배우자 외도, ⑥ 자녀양육 갈등, ⑦ 종교갈등, ⑧ 가족부양 부담, ⑨ 다문화 가구, ⑩ 시간부족, ⑪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⑫ 경제적 빈곤
	가족 돌봄	㉠ 장애인 돌봄 곤란, ㉡ 노인 돌봄곤란, ㉢ 아동돌봄(보육)곤란, ㉣ 만성(심각한)질환자 돌봄 곤란	①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② 시간부족, ③ 무기력감, ④ 경제적 빈곤, ⑤ 정보부족
사회 관계	사회생활	㉠ 직장생활 어려움, ㉡ 학교생활 어려움	① 정신질환, ② 지적장애, ③ 폭력적 성향, ④ 대인기피, ⑤ 과도한 활동, ⑥ 적응력 부족, ⑦ 지원거부, ⑧ 따돌림, ⑨ 폭력, ⑩ 성폭행, ⑪ 성추행, ⑫ 학업수행 부진, ⑬ 탈선 및 가출, ⑭ 경제적 빈곤, ⑮ 정보부족, ⑯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경제	기초생활	㉠ 결식, ㉡ 주거비 부족, ㉢ 의복비 부족, ㉣ 난방비 부족, ㉤ 공과금 체납, ㉥ 통신비 부족, ㉦ 의료비 과다	① 실직, ② 휴폐업, ③ 파산, ④ 신용불량, ⑤ 주소득원 사망·가출·실종, ⑥ 사고, ⑦ 일시적 질병 및 상해, ⑧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⑨ 건강보험 미가입, ⑩ 임차료 부담, ⑪ 정보부족
교육	기초지식	㉠ 읽기·쓰기·말하기 문제, ㉡ 수리계산능력 부족	① 다문화가구,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 ③ 경제적 빈곤, ④ 학습능력 부족, ⑤ 성취감 부족
	교육개선	㉠ 수업료·급식비 등 부족, ㉡ 특수교육 문제, ㉢ 학업성적 부진, ㉣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 무단결석	① 경제적 빈곤, ② 보호역할 가구원부재, ③ 가족부양 부담, ④ 장애인가구, ⑤ 부(모)자 갈등, ⑥ 이성문제, ⑦ 교우관계, ⑧ 탈선 및 가출, ⑨ 정보부족
생활 환경	주거환경	㉠ 화장실 열악, ㉡ 주방시설 열악, ㉢ 위생환경 열악, ㉣ 도배·장판 열악, ㉤ 냉난방 열악, ㉥ 사생활공간 부족	① 시설부족, ② 시설낙후, ③ 시설위험, ④ 시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등), ⑤ 위험물 방치, ⑥ 쓰레기 방치

* 자료 : 경기복지재단, 2009,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 욕구사정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기초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지원방향 및 목표, 지원 계획 수립

[표]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점검표 예

대상자명									
목표		단기					장기		
욕구 영역		서비스 제공					연계 기관	담당자	비고
		내용	시작일	종료일	시간	방법			
안전	가족 내 안전 유지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가족관계	관계형성								
	가족 돌봄								
사회관계	사회생활								
경제	기초생활								
교육	기초지식								
	교육개선								
생활환경	주거환경								

모니터링

- 진행상황 점검 사례회의, 제공된 서비스 등 진행내용 기록 및 관리
- 지원활동 전체 과정 적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추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의뢰

3 지역네트워크 구축

[1] 사업 목표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한 아동과 가족발달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공유함
- 지역사회 자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마련하며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보육 서비스 이외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가족의 최저 생활의 보장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킴

[2] 사업 내용

지역사회 자원조사

- 자원의 조직화는 자원목록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민간과 공공에 따라 복지, 문화, 교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들이 포함되도록 자원을 목록화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조직화해놓은 자원목록,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화해놓은 8대 서비스 자원목록,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조직화해놓은 주민OK 서비스(<http://www.oklife.go.kr>) 등을 활용

[표] 자원목록 예

구성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협력내용	비고
복지자원	공공				
	민간				
교육자원	공공				
	민간				
의료자원	공공				
	민간				
문화자원	공공				
	민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 범위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연합회, 학교사회복지사,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정신과병의원 등. 가능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대학 또는 전문가, 기업,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그 개념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가능하다. 네트워크가 단순한 조직상의 연계일 수도 있고, 회의만을 함께 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교류가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돌봄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지역 사회 내 관련된 모든 자원의 연계이며 실질적으로 관계를 포함하고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양육부담으로 인한 부모들의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을 해결해야 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 부모나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도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 가족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 참여단체들로 구성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사업 내용 협의
 - 저소득층 보육사업 주관 단체가 코디네이터로 역할 : 참여 단체 조율 및 행정기관과 협력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동 구성

- 아동과 가족이 돌봄과 관련된 전문가 서비스(영유아 돌봄, 서비스, 건강, 교육, 청소년, 소아과, 치과, 약물·알콜 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 노인서비스)를 적정 가격 및 적절 기간동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활동 기획
 - 일반적 서비스
 - 아동 및 가족 관련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안내서 제공
 - 모든 기관의 서비스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마련
 - 조기아동서비스에 아버지 참여 강화 전략 개발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각종 지역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 관련 프로그램 기획
 - 조기 아동 돌봄
 - 보육시설, 유치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서비스 간 연계체계 발전
 - 장난감도서관(toy library) 등의 보충적 서비스 지원 욕구 확인
 - 보육시설 및 학교 시간 전·후의 돌봄관련 부모 욕구에 폭넓게 상담할 수 있는 지원 체계
 - 교육
 -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 청소년
 - 청소년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홍보
 - 청소년 서비스와 협력하여 우울증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가능한서비스 제공
 - 청소년 문화 활동 관련 지원 방안 수립
- 노인
 - 조기교육서비스에 조부모 및 지역사회 노인 참여 확대
- 건강
 - 의료부문 간 서비스 연계체계 발전, 특히 주요 병원 연계 방안 마련
 - 정신건강, 알콜 및 약물남용 등 취약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 가족의 사회문화적 활동 참여 환경 조성
 - 참여 기관들 간의 공동 프로그램 기획

4 마을보육

[1] 사업 목표

-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민들이 가족과 마을을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인 사회공동체적 보육의 장인.
- 보육이 필요한 연령대의 부모들은 가정 내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돌봄 지원을 하면서 내 가족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마을의 관계와 마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돌봄을 공유하도록 함

[2] 사업 내용

협의회 구성

- 운영 차원의 제반 관심사를 지역 주민 및 부모들과 함께 나누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함
- 1년 단위 사업계획 수립하여 일상적인 보육사업과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집행
-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를 가지며 마을 보육과 지역사회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함.

시설 및 공간

- 지역사회나 교회, 어린이 도서관, 직장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받거나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함
- 시설여건
 - 육아방, 간단한 조리시설, 모임방 등을 구비
 - 육아방에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을 촉진하고,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며, 안전성, 무해성이 입증된 놀잇감 및 도서 등을 구비함.
 - 모임방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교재교구 대여나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수납공간 등이 갖추어지면 더욱 좋음

구분	종류
신체놀이	굴리기, 끌기, 만들기, 탈 것, 던지기(다트 등) 등
역할놀이	주방놀이(소꿉), 병원놀이, 시장놀이, 각종 상점 등
음률놀이	실로폰, 탬버린, 짹짹이, 건반악기, 타악기 등
조작놀이	각종 퍼즐 및 블록, 각종 소리나는 도구들
비디오/도서	인지능력개발, 창의력 개발, 생활습관 등
육아용품	전동 유축기, 젓병 소독기 등

보육 프로그램

- 보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표와 교육 내용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나,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 및 흥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중심적 사고 또한 고려함
-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을 참조할 수 있으나, 생태교육과 체험중심 교육 및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교육 등을 최대한 고려함

세대간, 가족 간 교류와 지원

- 부모의 '나 찾기' 프로그램
 - 성찰적 글쓰기 모임의 구성과 정례화 → 글쓰기 교사 모임 만들기 또는 부모역할 공부모임 → 의사소통 교육
- 지역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각 단체나 기관들이 운영하는 교육문화활동을 연대하여 지역프로그램으로 기획
 - 주민 교사들의 모임 구성

참고문헌

- 강혜규, 2008, "사회서비스 정책과 고용창출정책" 보건복지포럼 제14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영, 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33, 우리가 꿈꾸는 녹색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 고양시 일산구 후곡마을, 국토연구원, 국토 268.
- 김선기·이소영, 2004,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진, 2010, "비지배 의존 : 키테이(Eva F. Kittay)의 돌봄 이론 비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학위 논문.
- 김찬우, 2008, "돌봄서비스 정책의 등장에 따른 지역사회보호사업의 변화를 위한 전략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81-103.
- 김혜경, 2004,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 2: 75-104.
- 김희강, 2006, "평등주의에서의 '자율'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40, 3: 79-101.
- 다무라 아키라, 강혜정 옮김, 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한림신서 일본학 총서 81, 서울 : 도서출판 소화.
- 류중석·송미령·이성은·이왕건·이재준,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농림부.
- 박세경, 2010,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62: 32-41.
- 박소현, 2006,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드림스타트 지역유형별 사업 운영모형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복지분야 휴먼뉴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2009,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월간복지동향』 123: 28-32.
- 이봉주, 2009, "위스타트 프로그램의 성과 : 메타분석", 창립5주년 기념 We Start 국제학술대회, 세계의 스타트 프로그램 : 빈곤아동을 위한 혁신적 접근, We Start 운동본부.
- 정미숙, 2007,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 4: 191-216.
- 행정자치부,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행정자치부.
- 허라금, 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22, 1: 115-145.
- 홍백의·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 3: 125-146.
- 홍승아 외, 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황보람, 2009, "사회적 돌봄 정책의 성격 규명에 관한 이론적 연구 : 복지국가의 공사구별 정치경제적 관점" 『사회복지정책』 36, 4: 1-26.
- England, Paula and Nancy Folbre. 2002. "Care, Inequality, and Policy." In Francesca M. Cancian, Demie Kurz, Andrew S. London, Rebecca Reviere and Mary C. Tuominen, eds. Child Care and Inequality: Rethinking Carework for Children and Youth. New York: Routledge.
- England, Paula. 2005. "Emerging Theories of Care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 381-399.
- Fineman, Martha A. 2004. The Autonomy Myth: A Theory of Dependency. New York: The New Press.
- Folbre, Nancy.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The New Press.
- Folbre, Nancy, Paula England, and Michelle Budig. 2002. "Wages of Virtue: The Relative Pay of Care Work." Social Problems 49, 4: 455-473.
- Gilligan, Carol.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in, Robert E. 1985. Protecting the Vulnerabl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Held, Virginia.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ggar, Alison M. 1992. "Feminist Ethics." In Becker, Lawrence C. and Charlotte B. Becker, eds. Encyclopedia of Ethics. New York: Garland Pub.
- Kohlberg, Lawrence. 1971. "From Is to Ought: How to Commit The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 In Theodore Mischel,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Kittay, Eva F. 2002a. "Love's Labor Revisited." Hypatia 17, 3: 237-250.
- Kittay, Eva F. 2002b.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lation." In Eva F. Kittay and Ellen K. Feder, eds. The Subject of Care: Feminist Perspectives on Dependenc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Kittay, Eva F. 2007. "A Feminist Care Ethics, Dependency and Disability."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Newsletters 6, 2: 3-7.
- Noddings, Nel. 1984. Caring: A Feminist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ussbaum, Martha. 2002.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on Eva Kittay's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Hypatia 17, 3: 194-99.
- Ruddick, Sara. 1980. "Maternal Thinking." Feminist Studies 6, 2: 342-367.
- Tong, Rosemarie. 2002. "Love's Labor in the Health Care System: Working Toward Gender Equity." Hypatia 17, 3: 200-213.
- Tong, Rosemarie and Nancy Williams. 2009. "Feminist Eth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feminism-ethics/>)
- Tronto, Joan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통합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발행일 2011년 7월

발행인 조형

발행처 한국여성재단

(우)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Tel.02-336-6364, Fax.02-336-6459

<http://www.womenfund.or.kr>

E-mail.womenfund@womenfund.or.kr

디자인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